

美·日·中共 協調體制에 대한 蘇聯의 對應戰略

— Soviet Response to Cooperativ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ommunist China —

관 용  
관리과 ) 5/4

國 土 統 一 院

- I. 이 책은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받으나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 美·日·中共 協調體制에 대한 蘇聯의 對應戰略

— Soviet Response to Cooperativ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ommunist China —

研究執筆責任 曹圭晉

京郷新聞社 統一問題研究所

研究委員 겸 論說委員

刊行責任 尹炯憲 (教育弘報室 補佐官)

國土統一院 政策企劃室

# 目 次

I. 問題의 提起： 美·日·中共 3 国提携의 意味	3
II. 美·日·中共 協力体結成의 背景	7
III. 蘇聯의 対応戰略	14
가. 蘇聯의 反撥	14
나. 激化될 東南亞侵透攻勢	17
다. 中·蘇對立關係 전개와 그 本質	22
라. 集團安保構想의 戰略目標	25
마. 極東海軍力增強과 그  위협	35
바. 蘇聯外交의 特性	40
사. 3 国協力体 弱化工作과 對日接近試圖	45
아. 台灣의 戰略的價值	51
자. 結 論	57
1. 美·中共 軍事協力과 蘇聯의 挑戰	62
2. 中·蘇和解의 展望	66
IV. 蘇聯의 韓半島政策分析	71
要 約 文	75

## I. 問題의 提起 : 美·日·中共 3 國提携의 意味

美·中共 修交는 戰後 30 年에 걸친 아시아 冷戰구조를 根本的으로 變革시킨 점에서 劃期的인 사건이다. 종래 이 지역의 權力구조는 美·日·中·蘇 對立의 圖式으로 설명되기 일쑤였으나 어쨌든 日·中共 平和友好條約 체결과 美·中共 修交로 中共이 美·日 진영에 가담함으로써 蘇聯=美·日·中共의 새로운 權力體制가 형성되었다.

이미 오래 전부터 時間문제로 되어 있어왔던 美·中共 國交 정상화 문제는 72 年 닉슨의 역사적인 中共 방문으로 이루어진 美·中共간 上海 공동성명에서 두 나라의 外交 정상화를 바탕에 깔고 台灣을 中共의 一部라고 규정하여 美·中共 修交의 첫발을 내디딘 셈이었다.

이 冷嚴한 國際政治의 現實에서 導入되는 結論은, 오늘날의 세계 정세란 오직 利害관계와 實利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離合集散한다는 것이 하나의 原理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찌기 英國의 名宰相 이자 19 세기 유럽에서 多角外交의 名手로 명성을 떨친 파머스톤 卿이 말한 그대로 이다. 즉 그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同盟者도 영원한 敵對者도 없다. 오직 영원한 것은 利害관계 뿐이다』고 밝혔다. 그의 이 말이야말로 現政治人의 냉철한 現實主義를 반영한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날의 국제정치를 이보다 더 적절히 표현한 名諺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는 느낌이다.

2 차대전후 美國의 對外관계 認識은, 아시아에서 中共세력을 견제하고 自由中國을 지원하는 것이 國益上 最善이었다. 이른바 샌프

란시스코体制라고 할 美·日安保体制를 바탕으로 美国은 蘇聯과 兩軸을 이루어 펼쳐지는 국제權力政治를 지배해온 것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美国의 認識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다. 中共의 孤立化가 더이상 有益하지 못하며, 美国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똑똑히 깨닫게 되었다. 中共이 한때 「中世의 帝國」이었고 지금은 9억의 人口와 공격적 이데올로기 그리고 核을 보유함으로써 潛在的 大國으로 등장했는데 美国은 이러한 中共을 그 利益圈안에 끌어 들여 국제사회의 戰略的安定을 期하자는 것이다. 1)

그런데 中共 역시 60년대부터의 對蘇 경쟁關係를 고려하여 蘇聯을 견제하고, 「文革」으로 황폐화된 經濟를 복구하여 서기 2천년까지 強大國의 대열에 들어서게 하기 위해서는 美国의 先進技術과 資本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 西方세계의 指導國인 美国과 제휴함으로써 西歐先進자본國과 日本으로부터 광범위한 資本協力과 投資誘致를 期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中共의 計算이었다.

이 두가지의 現實主義노선, 즉 美国의 세계戰略 목표와 中共의 實益계산이 완전히 맞아떨어진 데서 美·中共의 역사적인 修交가 맺어진 것이다. 美国은 對中共修交로써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및 국제적安定에 크게 기여하게 되리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美国의

註1) サンケイ 1979.7.1. 브레진스키 美大統領 安保담당 特別補佐官과의 會見내용

말대로라면 太平洋을 사이에 두고 東西 두強國의 外交정상화는 「中共의 虛構」에 중지부를 찍어 中共으로 하여금 아시아 太平洋의 「平和的 틀」속에 誘導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 이유는 越南戰의 결과로 아시아에서의 군사개입을 회피하려는 美國으로서도 北京을 국제政治權力구조의 틀 속으로 끌어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美國의 長期的인 對外戰略面에서 볼때, 결코 利롭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美·中共修交와 日·中共平和友好條約 체결은 越南戰이후 계속된 아시아權力改編작업의 최종確定이자 그 終着点이다.

그러나 強大國간의 權力政治의 현실은 반드시 美國이 목표로 하는 理想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볼수만은 없는 一面이 있다. 美·日·中共등 3國의 연합체 형성은 아시아에서 蘇聯의 세력팽창을 견제하기 위한 對蘇포위망 구축이라는 성격도 전혀 무시하지 못하므로, 蘇聯을 자극해서 결국 아시아 및 세계정세를 더 流動化시킬 잠재적要因이 없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美·日·中共 3國의 協力体制 결성은 아시아정세에 「緊張緩和」와 「緊張造成」이란 兩面的要因을 胚胎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美國은 對蘇견제를 위해 이른바 「차이너·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中共 역시 蘇聯의 위협적 軍事力을 相殺하는데 美國세력을 끌어들이는 셈이다. 中共의 古典的戰略개념에서 본다면, 이것은 「遠交近攻」전략인 동시에 「以夷制夷」전략이다.<sup>2)</sup> 遠交란 註2) 軍事研究 1975. 2月号

美国과의 接近이요, 近攻은 蘇聯에 대한 反擊이다. 그리고 中共에 있어 美国이나 蘇聯은 모두 敵, 즉 「夷」(오랑캐)라는 뜻이다. 한발짝 더 나아가서, 美·中共修交문제의 흐름을 더듬는데 있어 近世 中国史를 통해 볼때는 하나의 뚜렷한 특징을 導出할 수도 있다. 즉 아시아에서 야기된 과거의 緊張은 美·日·中등 3國의 對立관계에서 派生된 것인데, 美国과 中国이 密着했을 때는 日本이 敵이었고, 반대로 美国과 日本이 파트너가 됐을때는 中国이 敵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제 美国은 兩國과 同時에 友好國이 됐고 이 3國의 提携형태는 새로 蘇聯을 敵對國으로 맞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概論을 통해 本稿는 前半部에서 美·日·中共등 3國의 結束이 국제권력 구조상 무엇을 의미하며, 그 協力관계는 장차 어떻게 發展하며, 國際政治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다루었다. 後半은 이에대해 蘇聯의 對應戰略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이며, 蘇聯이 아시아에서 企圖하는 目標이 무엇인가, 蘇極東 海軍의 戰力증강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며, 蘇聯의 對아시아 軍事力강화는 어느 水準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려 했다.

끝으로 蘇聯의 對應戰略이 韓半島정세에 미치게 될 影響을 中·蘇對立이란 觀點에서, 分析하려고 試圖했다.

本稿작성은 최근 발표된 學術論文과 新聞 및 時事評論誌를 참고 또는 토대로 했기 때문에 分析이라기 보다 主要見解와 主張을 소개하는데 力點을 주었음을 밝혀 둔다.

## Ⅱ. 美·日·中共協力체結成的의 背景

美·中共關係 正常化는 지금까지의 美·蘇兩極體制에 幕을 내리고 美·日·中共등 3國의 새로운 勢力圈에 의한 힘의 多極化時代를 개막시켰다. 美·中共 蜜月時代를 상징하는 美·中共修交 조치는 國際的측면에서 ①美·蘇 核우위전략 中 蘇國境으로의 확대 ②韓半島 冷戰체제의 붕괴유도 ③美·日·中共 군사·외교 協力강화 ④中·蘇 국경의 緊張高潮등 東北아시아의 정세를 激動시킬 여러가지 要因을 내포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시아 太平洋지역에서 美·日·中共을 主軸으로 한 對蘇견제網의 초석을 마련했다.<sup>1)</sup>

美·中修交는 예상보다 빨랐다는 점에서 『카터·쇼크』라고도 일컬어진다. 그러나 양국관계는 이미 70년대 초반부터 그 基盤을 서서히 마련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결코 『카터·쇼크』라고 해석할수는 없다.

여기서 美·中共修交로 이루어진 美·日·中共 3國協調체제의 背景을 美國의 아시아政策과 中共의 아시아 및 세계戰略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가. 美國의 아시아戰略構想

美·中共 關係정상화는 美國보다 오히려 中共쪽이 더 절실했던 게 사실이다. 農·工·科學技術·國防등 4개부문의 近代化에 정치

註 1) 京鄉新聞 1979년 1월 1일



생명을 걸고있는 華国鋒, 鄧小平등 實用主義제제는 西方의 지도국인 美國으로부터 국제적 公認을 받음으로써 정치·경제면에서의 지원과, 나아가 軍事面에서의 協力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대해 美國으로서는 그렇다면 修交를 서두를 까닭은 없었던가. 그 理由를 살피자면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시아 정세의 緊張, 그리고 아프리카·中東에 대한 蘇聯의 군사·외교적 침투를 지적해야 할것 같다.

아시아 정세는 78년부터 中·蘇對立을 배경으로 크게 변동했다고 말할 수 있다. 日·中共 平和友好條約체결에 대한 반발로 蘇聯은 78년 11월 3일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기한 25년)을 맺었고, 이어 12월 5일 아프가니스탄과 善隣協力條約(기한 20년)을 체결했다. 또 12월 20일에는 蘇聯과 이디오피아간에 友好協力條約(기간 20년)도 이루어졌다.

이중에서 특히 蘇聯과 아프가니스탄의 條約은 그 내용에 처음으로 『아시아 安保추진』을 明示함으로써 蘇聯의 對아시아戰略의 意圖를 노골화 시켰다.

한편 인도차이너는 베트남의 캄보디아 侵攻과 中·越戰으로 中·蘇對立이 激化一路에 있었다. 캄보디아는 79년 1월 베트남軍의 全面的 지원에 의한 親中共 폴·포트政權의 追放에 이어 2월에는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했고 그 직후 代表團을 모스크바에 파견하여 對蘇傾斜태도를 公式化했다.

이로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등 印支3국은 親蘇路線을 分明히

하여 蘇聯의 對中共 南部포위망이 일단 形成되어 中共의 不安感은 더 해갔다. 中共뿐 아니라 美國의 의구심은 美·中共修交이후 베트남과 軍事基地인 坎란灣에 대한 蘇聯선박의 빈번한 寄港, 蘇極東 함대의 移動示威 등으로 한층 高潮된 것이 사실이다. 美·中共修交 들 전후하여 이러한 軍事力과시는 蘇聯과 베트남은 軍事유대를 한층 強化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蘇聯의 印亞·中近東에 대한 進出도 美國의 경계심을 한층 높인 要因이 됐던 것은 말할나위도 없다. 『아프리카의 불』, 즉 紅海연안의 北部아프리카 국가간의 紛爭에서 蘇聯과 쿠바의 軍事지원을 받은 이디오피아는 소말리아에 圧勝한 때를 계기로 해서 78년 4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親蘇쿠데타가 발생했고, 美大統領國家安保담당 보좌관 브레진스키의 訪中을 전후해서 그해 5월 자이레에서는 앙골라에 拠点을 둔 反亂軍이 사바州를 侵攻하는 노골적인 挑發사태를 일으켰다. 이렇게 되자 美國은 蘇聯과 쿠바가 이러한 일련의 武力사태에 직접 介入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앙골라가 蘇聯의 對아프리카 戰略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拠点인 것은 이미 보도된바와 같다. 蘇聯의 戰略的의도는 앙골라에 주둔한 쿠바兵力을 이용, 나미비아와 로디지아의 게릴라를 支援하고 잠비아 모잠비크 탄자니아 및 보스와나와 일련의 統一戰線을 형성하여 궁극적 목표인 集團安保体制網과 連繫하는데 있다.

그 구체적手段으로 蘇聯은 아프리카 各國과 漁業協力を 중심으로 經濟유대를 강화해 이를 통해 영향력 擴大를 꾀하려는 것이다.<sup>2)</sup>

註2) 中央公論 1979년 4월호

蘇聯은 앙골라외에도 시에라·리오니, 赤道기니, 베넌 共和國, 나이제리아, 모리타니, 모잠비크, 모리셔스, 마다가스카르와도 協同漁業개발과 教育交流 港灣개발이란 名目を 통해 유대를 맺어 블랙·아프리카全域에 그 세력을 나날이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蘇聯의 세력침투는 美国이 越南戰에서 敗한 후 세계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도力量 및 外交政策을 축소함으로써 생긴 相對的인 결과이다.

蘇聯은 이밖에 73년 第4次 中東戰이후 이스라엘과 이집트 平和協商의 이니셔티브를 美国에 댄기자 이에 반발, 이라크·시리아合併과 이란革命의 침투를 노려 中東지역에도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以上の 정세變化 가운데 가장 注目되는 것은 베트남의 COMECOM (공산권 經濟相互援助會議) 加入과 對蘇條約 체결은 베트남의 親蘇化와 軍事基地化를 전망케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것들이 美国으로서는 아시아戰略面에서 큰 충격이 아닐수 없었다.

카터政權의 對中共修交는 이와같은 蘇聯의 급속한 勢力팽창을 겨냥해 中·蘇紛爭이란 측면을 이용하여 對蘇戰略優位를 확보하기 위한 政策的 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美国은 현재까지 中·蘇對立을 국제정세의 不安要因으로만 評價해왔으나 이것이 全面的인 軍事충돌로 가지 發展하지 않는限 共產圈 結束의 支配力을 弱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逆利用하여 蘇聯결제에 活用하자는 것이다. 美国의 對中共修交를 차이너·카드 또는 蘇聯카드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말하자면 美國은 中·蘇 양국을 같은 位置에 두고 双方을 戰略的으로 이용하면서 이른바 霸權主義를 控制한다는 戰略이다. 76년 10월 美 하버드大學의 제롬·크헨 教授는 「次期政權의 中共政策」이란 論文에서 『美國의 對中共戰略 초점은 어떻게 하면 擴大一路의 蘇聯 세력을 控制하느냐에 있다』고 했는데 이는 美·中共 關係 정상화의 意圖를 미리 示唆하는 內容이다.<sup>3)</sup>

그렇다면 카터 政權이 對中共 修交를 서둔 背景은 어떻게 설명될 것인가. 우선 아시아의 蘇聯勢力 評價에 워싱턴과 北京의 利害가 一致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中共은 美國에 대해 修交 先行 조건으로 ① 台灣과의 斷交 ② 台灣주둔 美軍의 완전철수 ③ 美·台 相互防衛條約의 破棄를 주장해 왔는데, 이 條件을 수락한 것은 中共이 台灣에 대한 武力行使의 포기와, 台灣에 대한 美國의 兵器 판매권 留保를 中共의 權力層이 보장했기 때문에 分析된다.<sup>4)</sup>

中共이 美國에 대해 台灣安全保障權을 양해한 것은 7함대의 철수로 생길지도 모를 台灣海峽의 安定붕괴를 두려워 했기 때문일 것이다. 즉 蘇聯이 베트남으로부터 湄公河의 海軍基地使用權을 얻을 경우 蘇聯海軍의 빈번한 台灣海峽 武力示唆는 中共에 커다란 위협이 아닐수 없다. 蘇聯함대의 이같은 移動과 戰力증강을 저지하기 위해서 中共은 美 7함대의 힘을 代價로 中共의 台灣에 대한 武力不行使를 카터 行政府에 保障한 것으로 分析된다.

註3) Foreign Affairs, Winter 1976

4) 朝日新聞 1978년 12월 17일

이러한 배경은 실제로 美·中共修交 発表時 兩國 共同성명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白堊館성명은 『台灣에 잔류 중인 軍事要員을 4개월 이내에 철수시킨다』고 하면서도 台灣海峽문제는 言及하지 않았고, 또 中共聲明 역시 美·台灣防衛條約 폐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은 美 7함대 등 美軍의 軍事力 잔류를 中共이 諒解한 때문이 아닌가 類推된다.

이렇게 보면 美國은 아시아문제에 積極적으로 介入한다는 것을 意味한다. 다만 그러한 介入은 軍事的 방식이 아닌 政治 外交的 수단에 의해 수행한다는 점에서 종래의 政策방식과 다르다고 볼 수 있다.

70年代 이후 美國의 對아시아政策은 이른바 關精神(그후 닉슨· 닥트린으로 改稱)이 그 基調로 일관돼 있다.

그 內容은 ①美國은 아시아 友邦과의 條約上 義務는 지키되 직접 軍事介入은 피하며 ②紛爭은 아시아 當事國의 책임으로 解決한다는 것이 그 骨字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시아에서 軍事力의 撤收를 의미하며 美國은 아시아지역의 地上전투에 美國의 意思와 관계없이 말려드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시아 不介入 정책은 美國이 越南戰의 상처와 체험을 통해 내린 최종結論이다. 美國이 越南戰의 늪에 말려들어 얻은 教訓은 激動의 세계에 있어 美國은 唯一의 保障者가 아니란 점, 軍事力만이 有効한 国力은 아니란 점, 美國은 軍事力以外 보다 實質的인 수단으로 對外문제에 介入한다는 것이다. 撤軍계획과 함께

韓半島의 安全보장을 軍事的방법이 아닌 強大國에 의한 政治보장 방식으로 유지하려는 것도 바로 이러한 美國 對外政策의 脈絡에서 理解할 수 있다.

어쨌든 美國은 좋든 싫든 아시아에서 軍事力을 완전히 철수시킬 수 없게 되었다. 그 가장 큰 理由는 對蘇 견제상 戰略的 요청과 戰爭抑止의 수단 때문이다.

### Ⅲ. 蘇聯의 對應戰略

#### 가. 蘇聯의 反應

日. 中共 平和條約 체결과 美. 中共 國交 정상화는 蘇聯의 아시아戰略上 一大타격이 아닐 수 없다. 蘇聯이 입은 충격은 美. 日. 中共 등 3國의 結束이 장차 軍事同盟체제로 발전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와, 美國의 아시아에 대한 積極的 介入 政策으로 蘇聯의 戰略目標과 中共포위망 구성등 汎世界的戰略에서 차질이 생긴 점이다. 실제로 蘇聯의 이러한 우려는 美·中共修交 직후의 公式反應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워싱턴과 北京의 修交發表가 있는 다음날인 1978년 12월 17일 蘇聯 國防省 기관지 「붉은별」은 「美·中·日의 反蘇同盟化」를 경고하는 내용의 長文의 論說을 실고 다음과 같이 비난했다.

즉『아시아 太平洋지역에서 美國 및 中共 日本 3國에 의한 反蘇同盟, 나아가 아시아版 NATO 형성을 목표로 한 움직임이 일단 強化될 危險이 있으며, 蘇聯으로서도 이에 對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注目할 것은 美·中共 修交에 대한 첫 公式反應을 黨기관지 프라우다가 아닌 軍기관지가 먼저 보도했다는 점이다.

이것을 얼핏보아 대수로운 문제가 아닌것으로 넘어가기 쉬우나 蘇權力内部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軍部強硬派가 아시아의 勢力改編에 크게 자극됐다는 일련의 動向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sup>1)</sup>, 앞으로 美·蘇데땅트가 軍部勢力에 의해 그 추진상 결코 순탄할 수 없을 것이란 것을 豫告하는 것이기도하다.

蘇聯공산당 기관지 프라우다는 그보다 이틀뒤 12월 19일 「正常化의 動機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論評(評論員 게오르기에프 執筆)을 실고 『美·中外交 關係확립의 발표는 北京指導部가 方針을 전환하고 社會主義世界에 公同연하게 敵對하고 가장 好戰的인 西歐진영과의 同盟의 길에 들어선데 대응해서 취해진 美國의 行動이다』고 비판했다. 이 論評은 이어 中共은 蘇聯을 主敵으로 간주한 外交戰線을 더욱 선명하게 내걸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우기 美·日·中共은 條約체결과 修交聲明에서 다같이 中共의 對外政策의 基調인 「反霸權」條項을 明示하고 있다는 점에서 蘇聯의 반발을 크게 사고있다.

日·中共平和友好條約(前文과 5개條) 제2條를 『兩締結國은 어느나라도 아시아 太平洋지역에 있어 그리고 다른 地域에 있어서도 霸權을 追求해서는 안되며, 이와같은 霸權을 確立하려는 어떤 國家 또는 國家의 集團에 의한 試圖에도 反對하는 것을 表明한다』고 규정했다. 또 美·中共 共同聲明은 『兩國은 아시아·太平洋이나 기타 世界 어느 地域에서도 霸權政策을 追求하지 않으며 다른 개별 국가나 국가그룹의 霸權追求 노력을 반대한다』고 못박고 있다.

註 1) 例컨대 『政經研究』 1979년 2월호, 金炳璘氏의 「蘇 太平洋 艦隊의 航跡」



日本은 公式으로 條約上의 覇權條約이 蘇聯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解明을 했다. 그러나 中共의 反覇權선언은 바로 「蘇聯社会帝國主義 반대」를 의미하기 때문에 蘇聯은 覇權조항을 삽입한 日·中共條約과 美·中共聲明에 不滿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日·中共條約조인 직후 蘇聯 타스通信은 이條約이 네탕트에 배치되고, 東南亞에 큰 위협이 된다고 論評했고, 또 니코라이·피류빈 蘇聯副外相은 駐蘇日本代理大使 마쓰바라·스스무를 불러 日·中共條約 체결에 대한 蘇聯의 公式立場을 전달한 것등은 日本과 中共의 접근에 대해 蘇聯의 경계심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물론 카터行政府는 이에대해 美国의 中·蘇等距離외교에는 변함이 없으며, 中共에 대해 武器판매는 計劃하고 있지않다는 점을 브레즈네프에게 文書로 전달했다. 또 맨즈美国務長官은 드브리넨駐美 蘇大使를 불러 카터·鄧小平會談의 내용을 說明해주는 異例적인 조치까지 취했다. 이것은 美国이 中共과의 修交때문에 蘇聯과의 네탕트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기본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權力構造 개편은 어느 의미에서 蘇聯의 外交孤立化를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美国의 아시아回帰에 의해 뒤통수를 얻어 맞은 蘇聯은 軍事 外交的안화를 위해 어떤 対応을 할것인가.

이 問題에 대한 검토를 하기전에 먼저 蘇聯의 世界戰略으로서 아시아政策 목표와 그 전개과정을 알아 보기로 한다.

#### 나. 激化될 東南亞浸透攻勢

蘇聯이 아시아地域에 대해 본격적인 關心을 갖기 시작한것은 70년대 부터라 할 수 있다. 蘇聯은 유럽에서 東·西分斷의 固定化와 東歐 지배에 대한 既得權을 西方側으로 부터 얻어서 유럽의 安定이 오자 이 地域에 대한 後顧를 讎후 곧바로 아시아에 눈을 돌리게 된것이다.

이 時期는 또한 美國이 越南戰에서 철수를 개시하여 東南亞에 생긴 힘의 空白을 이용, 점차 그 勢力을 擴張해 보려는 것이 모스크바의 意圖였다.

蘇聯의 對아시아 關心의 주요요인은 우선 安保 戰略的側面이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은 그 領土의 3분의 2가 우랄山脈以東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利害關係를 각별하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地政學的 理由 以外에도 아시아에 대한 蘇聯의 利害關係는 대단히 큰것으로 評價된다.<sup>1)</sup>

그러나 蘇聯의 아시아에 대한 安保·戰略的 關心은 情勢變化에 따라 여러가지 다른 形態로 나타났다. 즉, 1959년 부터 惡化되기 시작한 中·蘇紛爭은 蘇聯의 아시아政策에 새로운 부담을 안겨 주었고, 특히 69년대에 일관한 中·蘇抗爭과 分裂은 蘇聯으로 하여금 아시아에 보다 積極的인 利害關係를 갖게하는 背景으로 작용했다.

註 1) 國土統一院 刊 『蘇聯의 政治外交問題』

먼저 中·蘇紛쟁은 蘇聯의 對아시아戰略에 큰 차질과 장애요인으로 작용했다.

자고리아教授는 이에 대해 中·蘇紛쟁을 19세기 후반의 獨逸과 오스트리아, 獨逸과 프랑스간의 勢力경쟁 등에 비유하고, 1次대전을 불러 일으킨 20세기初 英·獨간의 紛쟁 또는 2次大戰직 후의 美·蘇간 冷戰과 크게 다를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中·蘇紛쟁이 다른 強大國紛쟁과 그 성격이 다른 점을 領土的隣接, 國境의 兵力배치와 충돌사건, 강렬한 民族主義와 社會體制간의 對立등 4가지 점을 들었다.<sup>2)</sup>

蘇聯은 中·蘇對立으로 유럽 전선의 NATO軍과 2개전선에서 兩面의 敵과 대항하는 2重의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 특히 中共의 核國家로의 등장은 蘇聯의 世界戰略에 큰 차질을 빚게했다. 현재까지 中·蘇紛쟁은 蘇聯의 對아시아戰略 遂行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을 뿐만아니라 아시아地域 國家로 하여금 自主, 獨立性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ASEAN 外相會議가 71년 東南亞 中立化 구상을 밝힌 것은 中·蘇 兩大國의 이러한 勢力 쟁탈로 인한 양진영에의 分極化를 막고 어느 한쪽에도 偏重하지 않으려는 태도표명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自衛策강구는 美軍 철수로 인한 힘의 空白을 이용하여 外交透浸工作을 전개하려는 蘇聯에게 일단 타격이 아닐수

註 2) 『政經研究』 79년 2월호 특집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平和의 追求』

있고 이런 의미에서 그동안 蘇聯外交는 아시아에서 停滯를 면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70년대에 들어 蘇聯의 아시아戰略은 積極적인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앞서도 지적한대로 越南戰이후 아시아에 대한 霸權을 蘇聯이 先占하여 集團安保구상을 본격화 하려는 것이다.

蘇聯의 아시아진출의 최대목표는 中共 封鎖에 있음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렇지만 蘇聯의 이같은 外交공세에 대해 아시아국가의 反應은 대체로 積極적인 편은 아니었다.

이것은 中共이 東南亞에서 잠재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데 反해 蘇聯은 그러한 전통적 地盤과 유대가 결여된 때문이다. 이것이 아시아지역에서 蘇聯의 戰略추구방식이 行動적이고 攻擊적인 所以이다.

東南亞에 대한 中·蘇의 세력각축은 베트남이 印支 3國의 蘇聯化 구상을 구체화 하고 勢力 擴大를 피하는 움직임이 노골화하자 더욱 尖銳化했다. 中共으로서의 美軍의 철수가 이지역에 「앞문으로 이리물 몰아내자 뒷문으로 호랑이를 들어오게 하는」 사태<sup>3)</sup>를 막기위해 「文革」으로 한때 중단되었던 外交를 이지역에 集中的으로 수행했다. 中共은 外交使節을 보냈고 모스크바 역시 베트남

註 3) 1975년 6월 9일 마르코스 권리 권大統領夫人 이멜다女史가 北京을 訪問했을 때 鄧小平의 딸.

을 拠点으로한 이 지역의 外交공세를 한층 강화해 나갔다.

東南亞 쟁탈을 위한 中·蘇 兩國의 浸透工作은 이때부터 本格化했다고 할 수 있다.

ASEAN 5개국중 싱가포르를 李光耀首相의 강력한 統治力 때문에 비교적 中·蘇 對立의 舞台가 되지않았으나,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泰國은 共產계릴라 問題로 中·蘇紛争의 波長을 불러들일 素地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아세안 5개국은 싱가포르를 제외하고는 中·蘇와 共히 等距離外交를 하고있다.

어쨌든 아시아를 둘러싼 中·蘇의 對立은 70년대 國際政治의 큰 焦點이 되어온 것은 사실인데, 특히 美·蘇·日·中共등 아시아 관련 4大國이 새로운 權力構造改編으로 아시아問題에 対応을 하게 된 제일 큰 契機는 베트남·캄보디아戰과 中共·베트남戰爭 때문이라 하겠다.

베트남·캄보디아戰은 印支半島의 局地紛争의 性格을 훨씬 넘어 中·蘇 강대국의 紛争으로 발전할 素地를 애초부터 갖고 있었던 셈이다. 1978년 부터 印支半島에 中·蘇의 敵對關係가 深化된 적은 78년 8월 12일 日·中共간에 平和友好條約이 체결된데서, 그 要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蘇聯은 이 條約이 對蘇포위망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같은해 12월 共產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하여 中共逆包圍網을 형성, 이에 대항했다. 그런데 베트남은 이해 12월 越南戰당시 美軍이 남겨 놓고간 武器와 蘇聯으로 부터 지원받은 兵器로 인근 캄보디

아 領内に 侵入, 단숨에 首都 프놈펜을 장악하여 폴·포트政權을 내몰고 새 政府를 수립했다.

中共측은 캄보디아에 軍事顧問과 技術者를 파견하여 사실상 軍事補強을 지원했으나 戰力이 越等한 베트남軍에 完全히 制壓되고 말았다. 이 사실은 蘇聯側으로 보면 베트남의 印支聯邦化 戰略을 도와 그에 편승하여 東南亞에 政治外交的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되지만 中共으로서는 일단 印支半島의 霸權戰에서 苦杯를 마셔 그 威信의 저하도 물론 蘇聯의 對亞進出 阻止에 하루빨리 美國을 끌어들이는 契機가 된 셈이다. 아뭏든 베트남·캄보디아戰은 中·蘇 兩國의 代理戰이란 性格을 띤 점에서 越南戰이후 또 하나의 세계적 쟁점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다.

베트남軍이 캄보디아를 侵入하자 모스크바當局은 이를 支持하는 聲明을 발표했고 많은 東歐衛星國이 이에 뒤따랐으며 이에 반해 루마니아의 초세스코大統領은 社會主義국가에 대한 社會主義者의 침략행위라고 비난한 것은 이러한 中·蘇 兩國의 對立關係를 잘 말해준다. 또 아시아 아프리카의 非同盟國도 이를 비난했고 79년 1월 UN安保理에서 蘇聯은 캄보디아 問題 토의를 놓고 完全孤立되었다. 노르웨이는 對베트남 經援을 전면적으로 中斷한다고 발표하는등 그 波長은 확대되었다.

中共이나 ASEAN 국가가 한결같이 우려하는 것은 蘇聯의 지원에 의한 베트남의 캄보디아 장악이 蘇聯에 海·空軍 군사기지를 제공케 되어 베트남을 기지로한 蘇海軍力 示威가 東南亞지역 및 印度

洋의 戰略균형을 깰것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 다. 中·蘇 對立關係 展開와 그 本質

70년대 中共外交의 최대원칙은 霸權問題인데 이것은 이미 周知된 사실이다. 그러므로 中共의 對外認識을 파악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中·蘇關係의 構造와 그 展開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中·蘇分裂過程을 먼저 파악한후 中共의 對外政策목표와 對美接近過程을 알아본다.

中共의 對蘇불만은 蘇聯 前首相 흐루시초프가 스탈린 格下운동을 개시했던 1956년 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毛澤東은 이에 대해서 蘇聯이 事前協議해 주지 않는데 불만이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에 理念戰의 싸이 트게 된 것이다. 中共이 蘇聯을 修正主義者라고 규정한 것은 이때 부터이다.

특히 蘇聯共産黨 제 20차 大會에서 흐루시초프가 社会体制가 다른 국가와 平和共存을 선언한 것은 『帝國主義가 存立하는限 戰爭은 불가피하다』는 종래의 마르크스·레닌敎義에 대한 一大修正이 아닐 수 없으며 中共은 蘇聯의 이러한 路線을 公式으로 修正主義로 못 박은 것이다.

1960년 蘇聯의 技術者 철수는 大躍進운동을 전개하던 中共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69년 滿洲와 新疆省등 일련의 國境충돌은 兩國分裂을 돌이킬 수 없는 狀態로 만들었다. 이른바 珍寶島사건은 그 代表的인 충돌사건인데 브레즈네프의 아시아集團安保論은 이 渦中에서 나온 것으로 그 眞意가 어디에 있는지 추측

하기 어렵지 않다.

이로부터 中·蘇의 충돌과 비방선전은 계속되고 있는데 때로는 和解 움직임이 보이는 듯 했으나 현재까지 여전히 敵對的 關係를 일관해 오고 있다.

蘇聯은 전통적으로 帝政러시아의 東進·南下政策을 계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스탈린은 蒙古를 中國에서 分離시켜 衛星國化했고 東北 新疆地域에도 그 세력을 확장했다.

호루시초프는 中·蘇核연합대의 창설과 中共의 코메콘加入을 요구했으나 拒絶당하자 中共에 經濟보복 조치까지 취했다. 이것은 바르샤바條約과 코메콘의 活動을 極東아시아에도 확대하려는 기본전략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蘇聯은 호루시초프 時代に 체코侵攻名分으로 社会主義 諸國의 「有限主權論」이란 이유로 正當化하려고 했다.

그러나 中共은 이에 맞서 蘇聯을 「社会帝國主義」라고 규정했고 69년의 國境충돌과 美軍의 越南철수를 계기로 中共은 종래의 反美親蘇 노선을 바꾸어 反蘇親美 政策으로 전환한 것이다.

中共은 66년 文化大革命 전개로 蘇聯과 사실상 訣別狀態에 들어갔고 對美接近은 蘇聯의 가중된 軍事壓力에 의해 더욱 촉진된 셈이다. 中·蘇關係 30년은 時代적으로 다음과 같이 区分할 수 있다.<sup>1)</sup>

註 1)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刊 『ソ連對外政策の諸様相』



① 友好蜜月期 = 中共政權이 樹立된 1949년 부터 56년 흐루시 초프가 스탈린 格下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6년간.

② 対立으로의 移行期 = 56년 부터 59년 中·印 国境紛争과, 흐루시초프의 訪美 및 美·蘇 캠프·데이비드會談개최 때 까지의 기간.

③ 対立期 = 59년 부터 64년 中共이 國際共產主義大會 개최반대를 선언하고 아울러 中共의 核실험이 있기까지는 5년간.

④ 抗争期 = 65년 이후 中·蘇 対立關係의 深化로 對話가 단절된 狀態의 外交충돌기간. 이에 반해 美國의 公産권문제 전문가 도널드·S·자고리아 教授는 ①對立萌芽(56-57년) ②人民公社 論争期(58-60년) ③共產블럭 紛열과 世界戰略論争期(57-58년) ④分裂과정(59-60년) ⑤和解不能狀態(61년 이후)로 나누고 있다.<sup>2)</sup>

이밖에도 第1期(49-57년) = 友好期, 第2期(58-62년) = 過渡期, 第3期(63년 이후) = 對立기로 나누는 學者도 있다.<sup>3)</sup>

어쨌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政治와 이데올로기面에서 蘇聯은 「프롤레타리아獨裁, 全人民國家로의 移行論」을 주장하는데 대해 中共은 「프롤레타리아 獨裁下的 계속革命論」을 주장한다. 또 經濟

註2) Donald S. Zagoria, The Sino-Soviet Conflict (1956 - 1961), Princeton, New Jersey, 1962)

3) 中西治 「ソ中關係の展開 - 1949 ~ 72年」 『國際問題』 1972년 7月号.

면에서 蘇聯이 「重工業優先論」을 강조 하는데 反해 中共은 「農業基礎論」을, 또 蘇聯의 「國際分業論」에 대해 中共은 「自力更生論」으로 맞섰다.

中共은 군사면에서 「독자의 核抑止 保有」를 指向했고, 外交面에서 蘇聯의 「集團安保論」에 대해 「霸權반대, 民族自決을 對항해 왔다.

#### 라. 集團安保構想의 戰略目標

1975년 8월 1일 美國을 비롯한 東西유럽 首腦 35명이 調印한 安保文書는 蘇聯의 東歐圈 지배와 戰後冷戰 처리를 최종적으로 확인된 의미를 가진 것은 앞에서 설명했다. 그런데 中共은 이條約에 즉각 반발하여 『安保會議가 아니라 危險會議』라고 비난했다.

中共의 이같은 비난은 蘇聯이 「유럽 安保」의 實現으로 그 餘勢를 몰아 아시아에 軍事·外交的進出을 本格化하지 않을까 하는데 대한 憂慮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中共의 이러한 不安感을 뒷받침이라도 할듯이 蘇聯은 이해 8월 9일 프라우다紙 論說을 통해 印·蘇友好條約 4주년을 기념하여 「아시아集團安保」 창설을 촉구하고 『全歐安保·協力會議 가 빛나는 성과를 거두고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人民들이 帝國主義로 부터 해방되는 最近의 사태는 아시아에 安保體制를 창설하는 좋은 條件』이라고 강조했다.

蘇聯이 아시아에 대한 長期的인 戰略構圖로서 集團安保體制의 창설을 처음으로 제의한 것은 196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國

際共産党・労働者党 大会 때 었다. 세계 75개국 共産党代表가 参加한 이 會議에서 브레즈네프는 中共을 격렬히 비난한 뒤 『우리는 事態의 進展에 따라 아시아에 集團安保体制를 창설하는 課題를 議題에 올려야 한다』고 제의했다.

蘇聯이 아시아에 集團安保体制를 구축하는 문제는 이미 1956년 2월 제 20차 蘇聯共産党大会에서 흐루시초프가 『유럽의 集團安保, 아시아의 集團安保, 軍縮, - 이 세가지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 문제를 解決함으로써 永続的 平和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한 報告에서 일단 拳論되기는 했으나 이構想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던 것은 아직 蘇聯의 外交政策 목표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된다. 69년의 브레즈네프 연설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안당시 내용이 모호했던 이 構想은 70年初 부터 그 구체적인 모습이 점점 드러났다. 즉 72년 3월 14일 코시긴 首相은 訪蘇중인 아프가니스탄首相 압둘·자이르의 歡迎만찬회에서 아시아集團安保体制의 實現을 추구하면서 그 原則으로서 ①紛争문제 解決時의 武力不行使 ②社会体制가 다른 국가와의 平和共存 ③互惠 協力の 발전을 제시했다. 코시긴이 제시한 이 原則은 그 1주일 후인 3월 20일 蘇聯労働者同盟 제 15차 대회에서 브레즈네프에 의해 일부 修正되어 다시 提唱되었다.

그것은 ①武力不行使 ②主權 존중과 国境不可侵 ③内政不干涉 ④經濟 기타분야에서의 互惠・平等의 協力 등 4개항으로 되어 있다.

브레즈네프는 이 연설에서 『우리는 이러한 原則下에 아시아集團安  
保를 主張하며 그 實現을 위해 모든 國家와 協力할 용의가 있다』  
고 밝히면서 그 成敗는 中共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덧붙였다. 이  
것은 코시킨의 「3 原則」에서 「平和共存」 조항을 빼는 대신 「內  
政不干涉」 및 「主權 존중과 國境不可侵」 조항을 삽입한 것에 不  
過했다.

브레즈네프 「4 原則」이 1954년의 네루·周恩來간 「平和5 原則」  
과 다른 점은 後者の 「5 原則」 중 領土主權 존중」이 「主權 존  
중과 國境不可侵」이란 표현으로 바뀐 것이다. 바로 이점이 아시  
아 集團安保構想의 주요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는 대목이다.

어쨌든 브레즈네프 「4 原則」의 定型化를 계기로 蘇聯은 아시아  
· 中近東지역에 그 具顯을 위한 積極的인 外交攻勢에 나섰다. 72  
년 蘇聯黨·政府代表의 시리아 訪問을 계기로 이라크·아프카니스탄  
· 말레이지아·이란·방글라데시 등과 활발한 外交接近과 雙方協定을  
통해 아시아集團安保構想에 대한 蘇聯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런데 여기서 蘇聯이 왜 그같은 時期에 아시아集團安保論을 제  
기했는지 그 意圖와 背景을 잠깐 살펴 보기로 한다.

무엇보다도 中·蘇關係의 惡化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  
1960년대 後半에 이르러 마침내 戰略核兵器면에서 對美戰略均衡을

註 1) 日本國際問題研究所 刊 『現代ソ連の政治と外交』

따라잡게 되었다. 즉 67년 이후 ICBM 1천 54기, SLBM 6백 56기를 上限으로 固定된 美國의 戰略核운반수단 保有量에 대한 蘇聯은 겨우 ICBM 4백 60기, SLBM 1백 30기로 ICBM은 美國의 절반, SLBM 保有는 5분의 2-의 劣勢에 있었다. 그러나 69년에 이르러 蘇聯은 ICBM 1천 5백기를 保有, 對美패리티를 실현하게 되었고 SLBM에 있어서도 69년 이후로는 현저하게 增強되어 73년에는 美·蘇간에 戰略核均衡을 어느정도 유지하게 되었다. 하지만 蘇聯의 이와같은 戰略核경쟁은 數量面에서는 美國과 같은 수준은 유지하게 되었지만 質的으로는 여전히 美國의 技術에 뒤져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런데 이렇듯 가까스로 實現된 美蘇의 戰略패리티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는 것은 다름아닌 中共의 動向과 中蘇國境論争의 激化였다. 全長 7천 km에 달하는 中·蘇國境地대는 60년대 前半期까지 비교적 平穩했고, 中·蘇關係가 「國家間 對立」상태였던 64년에는 이지역에 주둔한 蘇聯兵力은 17개 師團에 지나지 않았다. 이 중 10개 師團만이 戰時編成대였고 나머지는 戰時編成을 갖추는데 1개월 이상이 걸리는 그런 상태하의 師團이었다.<sup>2)</sup>

이러한 상황은 中·蘇對立이 고도화될 것을 고려에 넣는다면 매우 不利한 體制였음은 너무나도 뻔했다. 이때 西方側의 매스컴은

註 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Military Balance, 1974-1975.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했다. 즉 東유럽에 주둔한 高度로 訓練된 蘇正規軍이 極東으로 移動중이며, 蘇聯은 極東軍에 核彈頭 地對空 미사일을 배치했고, 그 종류는 未詳이나 正規軍以外 國防警備隊에도 이 미사일을 배치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中央아시아의 蘇聯軍 7~8개師團이 바이칼 以東의 作戰까지 분담한다는 사실도 보도되었다. 한편 蘇聯의 신문들도 蘇聯 國境地대 住民의 軍事訓練을 강조하는 論調를 계속했다.

蘇聯은 이와 때를 같이하여 46년에 체결했던 몽고와의 友好協力·相互援助條約을 66년 우란바트로에서 브레즈네프의 訪問을 계기로 更新해 注目을 끌었다. 이 條約은 새로이 70년의 有効期間을 두고 그 5條에는 「兩國의 防衛力 확보를 위해 相互援助한다」 중요한 國際問題에 「協議」하며, 두나라의 安全 獨立 領土확보상 「軍事的 사항을 包含하여 모든 必要한 조치를 共同으로 취한다」고 규정했다. 이 규정은 결국 蘇聯軍兵力의 몽고領內 주둔허용, 基地사용을 약속하는 것이었다.

이리하여 蘇聯의 아시아方面 軍事力이 현저하게 強化하기에 이르렀다. 60년대 前半과 비교하면 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1960년대 前半까지 蘇聯軍의 全般的인 兵力 配置상황을 보면 中·東歐지역에 26개사단, 우랄山脈以西·코카사스北部의 유럽·러시아地域에 75개사단, 中部러시아方面에 22개사단, 極東에 17개師團이 配置되어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우랄山脈을 경계로 以西에 총兵力의 4분의 3, 以東에는 불과 4분의 1이었다.

이것이 1968년에는 우랄以西에 89개師團으로 줄어든 후부터, 東·中歐方面 주둔군이 약간 增加했지만 69년 92개사단, 70년 91개사단 등 그 增勢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 기간중 蘇聯의 地上兵力은 60년대의 1백 40개師團에서 69년 1백 55개사단, 70년 1백 57개師團으로 增編되었다.

그런데 68년중에는 師團數의 增加가 없었고 유럽方面軍의 減少兵力은 다른 地域으로 移動했다고 보므로 69년 이후의 蘇聯軍增強分은 모두 아시아地域에 配置된 것으로 分析된다.

蘇聯아시아 駐屯軍의 이러한 強化추세에 비해 70年代後半의 中共軍 対応태세는 어떠했는가. 地上軍 總數 1백 18개사단중 半數의 56개師團이 太平洋연안 지대의 廣東 武漢兩軍區에서 自由中國軍에 對항하는 兵力配置를 하고 있었다. 蘇聯의 極東軍에 對抗하기 위한 瀋陽·北京 등 兩軍區에는 正規軍 28개師團과 國防경비대·民衆을 包含해 총 59만 9천명 정도가 배치되었다. 또 中共의 核개발基地로 여겨지는 新疆·蘭州軍區에도 각각 4개師團, 11개師團 등 30만 5천명(國境경비대包含)가 배치되어 있었다.

兵力數만을 놓고 보면 蘇聯極東軍은 中共에 비해 劣勢에 있었지만 裝備面에서 中·蘇의 格差는 현저했다. 이를테면 70년 현재 中·蘇國境西部지대의 蘇聯軍 中戰車 및 重戰車는 7천개인데 反해 中共은 불과 5백대에 지나지 않았고, 中央·東北部 國境지대는 蘇聯의 6천 5백대에 비해 中共은 2천대로 質量面에서 蘇聯은 圧倒的이었다.

이런 軍事的對峙속에 69년 3월 두차례에 걸쳐 다만스키島를 둘러싼 中·蘇國境충돌이 발생, 피차간에 피해가 상당했다. 中共軍이 상대적으로 劣勢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國境에서 蘇聯軍에 대해 挑發을 한 것은 注目할 일이지만 美國 戰略研究所는 이에 대해 『政治的, 地理的, 人口的要因이 크게 작용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廣東方面의 兵力一部가 自由中國軍에 대해 後顧를 하여 國境지대에 移動配置될 경우 中·蘇軍事충돌의 危險性은 더 크다고 보겠다. 蘇聯의 최근 極東方面으로의 兵力 및 高性能武器의 移動은 이러한 中共의 挑發과 外交力의 弱화를 노린 것이다.

둘째로 蘇聯이 「아시아集團安保」 제의에서 意圖하는 것은 蘇聯이 主導하는 國際共產主義 運動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밝힌 國際共產黨 및 勞動者大會에는 아시아에서 日本共產黨을 비롯하여 버마, 泰國, 인도네시아共產黨 및 越南民族解放戰線은 不參했다. 따라서 모스크바는 이 會議을 계기로 세계共產黨에 대한 主導權과 團合 및 結束을 강화할 必要性을 切感했던 것 같다.

브레즈네프가 제시한 集團安保구상의 背景은 당시 英國軍의 수에즈以東지역 철수와 그후 美國의 닉슨·독트린, 이에 수반된 越南철수 등으로 빚어지는 아시아의 「힘의 空白」을 틈 타 이 지역에 軍事的·外交的 進出을 피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째, 68년 7월 이후 西獨의 東方政策 전개로 촉발된 西유럽에서의 데탕트를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로 關心을 돌리기 위한 것으로도 分析된다.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은 이런 의미에서 蘇聯이 아



시아 國際關係에 있어 全般的인 安保를 發展시킬 수 있는 條件을 成熟시켜가는 하나의 점진적인 過程으로도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제반 事件과, 蘇聯의 展開과정으로 볼때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은 그 性格과 윤곽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 ① 集團安保란 美名下에 아시아에 軍事外交的 발단을 구축하고,
- ② 中共의 反蘇的 美·日 제휴를 견제하며
- ③ 아울러 2次大戰後의 國境을 凍結 하여 蘇聯의 對日·對中共 領土 問題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戰略構圖라는 것을 結論으로 導出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부분의 아시아國家는 冷淡하다.

베트남과 北韓도 이 제의에 비교적 消極的 反應을 보이고 있고 東南亞國家聯合측도 회의적이다. 蒙古와 印度, 아프가니스탄 정도가 積極的이었을뿐 그밖의 共產主義국가를 包含한 아시아의 對美修交國이 모두 否定的이거나 긍정적 反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這間의 현실이다.

더우기 蘇聯이 내세우는 集團安保構想의 具體的項目들은 여러가지 복잡한 底意를 함축하고 있어 共產·非共產국가들이 대부분 의문을 갖고 있다.

우선 「國境不可侵 및 主權존중」과 「紛争문제 解決의 武力不行便」은 日本과 北韓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項目이다. 日本은 蘇聯이 2차대전時 占領한 北方領土의 반환이 對蘇條約의 先決要件이 됐는데 「國境不可侵」 항목의 승인은 이들 領土에 대한 포기외, 既定

事實化를 의미하게 된다.

또 北韓은 「不可侵」項目이 그들의 對南赤化戰略에 相馳되며, 大韓民國이 주장하는 不可侵協定 체결을 合理化시키는 동시에 韓半島의 現狀固定化에 同調하는 結果가 되기 때문이다.

中共 역시 「武力不行使」는 「台灣解放論」에 대한 견제項目으로 인식될 수 있어 反對의 口實이 된다. 自由中國도 「經濟 기타분야에서의 協力」과 「國境不可侵」은 하노이式 內部교란을 意圖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음은 물론이다. 印度 역시 77년 親蘇派의 간디政權이 무너지고 데사이政權이 非同盟中立化政策을 여러차례 천명하고 있는만큼 현재로는 集團安保構想에 적극적인 熱意를 받아 내기는 어렵다.

이상 蘇聯의 集團安保構想이 최근에 이르러 一時的 停滯상태에 빠진 것은 사실이다. 中共이 美·日과 密着됨으로써 앞으로 이構想은 아시아 각국의 呼応을 받기가 더 어려울 것으로도 보인다.

하지만 集團安保体制構想은 蘇聯의 長期的인 政策追求目標이므로 그때 그때 戰術을 전환해 가면서 계속 追求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하나로 蘇聯은 ASEAN에 대한 종래의 태도와 評價를 一大 전환하는 조치를 취한 것을 들 수 있다.

78년 7월 蘇聯政府기관지 이즈베스차는 ASEAN에 관한 長文의 論文을 실고 『ASEAN』은 창설 이래 10년간 東南亞지역에서 建設的인 기여를 했다』고 評價함으로써 美國의 조종에 의해 軍盟化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 종래의 태도를 一變시켰다.

이것은 COMECON 加入으로 蘇聯傾斜를 뚜렷이 하고 있는 베트남에 편승하여 東南亞국가에 接近하기 위한 戰術의 轉換이라 할 수 있으며, 中共의 反蘇統一戰線에 ASEAN이 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細心한 配慮이다.

蘇聯은 ASEAN의 性格에 대해 경계해 왔으면서도 ASEAN 外相會議가 71년에 천명한 東南亞中立化構想에 대해서는 매력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이는 中立化가 실현될 경우 1차적으로 ASEAN에 接近할 수 있는 나라는 蘇聯自身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은 또 對아시아進出企圖가 一時 장벽에 부딪쳐 戰術 전환이 불가피해지자 그 打開방안으로 集團安保構想을 一挙에 追求하지 않고 2國間 내지 多國間 友好協力關係를 맺음으로써 그實現의 길을 점차 더가는 점진적인 戰術을 구사하고 있다.

具體적으로 「集團安保」의 原則을 基調로 한 友好協力條約의 「고리」를 하나씩 하나씩 擴大해가는 方法이다. 이를테면 이라크, 소마리아, 앙골라, 모잠비크, (소마리아는 그후 廢棄)와 체결한 條約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와의 條約에는 이른바 「協議條項」, 즉 『雙方이 필요한 경우 軍事, 政治的 문제에 관해 協議한다』는 내용이 例外 없이 挿入되어 있다.

蘇聯은 또 條約 체결에는 이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友好協力の 강화 發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宣言, 聲明을 내도록 하는 戰術을 쓰고 있는데 방글라데쉬, 말레이시아,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시리아와의 關係가 이 범주에 屬한다. 어느경우나 集團安保體制를 完

成하기 위한 基礎과정임은 거듭 말할 것도 없다.

#### 마. 極東海軍力增強과 그 위협

蘇聯이 對外戰略수행의 수단으로서 軍事力を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叙述했다. 그중에서도 가장 有效하게 이용하고 있는 戰略수단은 역시 蘇聯海軍力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블라디보스토크에 基地를 둔 蘇太平洋艦隊가 아시아각국의 境界의 対象이 되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美·日·中共의 協力体制결성으로 당장에 想定할 수 있는 蘇聯의 対応戰略은 아시아·太平洋과 東南亞에 기존 海軍力を 증강배치하여 外交壓力의 武器로 이용하리라는 점이다.

여기서 먼저 蘇聯海軍의 戰力현황과 蘇聯이 政治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海軍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기로 한다. 2차대전 직후 蘇聯이 보유한 海軍力は 沿岸 경비정과 小型잠수함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1962년 蘇聯이 쿠바사태에서 美國으로 부터 받은 打擊을 계기로 海軍力を 착실히 발전시켜 그결과 잠수함은 디젤엔진에서 原子力추진으로 바뀌고 古型 SLBM은 최신형 MIRV로 代替되었다.

1958년 부터 1968년까지 10년간에 蘇聯의 艦艇建造가 年平均 45.5척에 이르는 사실만으로도 對美優位를 잡기 위한 蘇聯當局의 야심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 1958년 이후 美國의 艦艇建造는 매년 19척의 比率를 보이고 있다.

과거 18년간 蘇聯은 약 7백척, 美國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백 77척을 建造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新造艦의 총톤수는 蘇聯의 2백 60만톤에 대해 美國은 3백 30만톤에 達하므로 美國이 大型艦艇建造에 앞섰다는 結果가 된다. 1976년 현재 蘇聯이 保有한 艦艇의 총톤수는 4백 50만톤인데 대해 美國은 5백 50만톤이다. 이중 블라디보스토크에 基地를 둔 蘇聯 太平洋함대의 총톤수는 1백 20만톤, 美國의 7함대는 60만톤으로 아시아 太平洋에서의 海軍力은 美國이 훨씬 뒤져 있다.

1976년 蘇聯은 총톤수 4만톤의 키에프級 航母를 就役시켰으며 이와 同級의 민스크호가 回航중인데다가 2척을 追加 建造하여 太平洋艦隊에 배치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하면 美國의 西太平洋 海軍力은 越南戰이후 오히려 축소되어 7함대 航母機動隊는 航母 3척이 2척으로 줄어들었고, 保有함정은 현재 64년의 절반, 越南戰이 절정에 이르렀던 68년의 40%로 弱化되었다.

거기다 美國은 70년이후 印度洋으로 戰略의 重點을 옮기는 바람에 太平洋의 7함대를 定期的으로 이 海峽으로 移動巡航시켜 東南北아시아에 非常事態가 발생했을 경우의 機動対応力이 사실상 半減된 셈이다.

蘇聯의 太平洋함대는 총 4백 50척으로 편성되어 美國의 2배, 戰艦과 잠수함은 1백 39척으로 美國보다 20%가 더 많다.<sup>1)</sup>

註 1) 美·蘇戰力비교는 『The Military Balance』와 『日本防衛白書』 參照.

그리고 極東 蘇聯海軍力은 ①艦隊戰鬥力の 대부분을 東北亞에 묶어 두고 있으며 ②東南亞進出을 노려 79년 美國의 트라이던트 잠수함 配置에 対応하기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소달리아-베트베타에 걸쳐 海外의 航空 海軍基地를 늘리는데 열중하고 있다. ③ 東北亞에 主力을 두고 있기 때문에 韓國과 日本에 특히 위협적인 存在가 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見解이다.<sup>2)</sup>

그렇다면 蘇聯海軍의 이러한 增強 목표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世界の 海洋을 共產主義 건설에 利用하려는 데 있다』고 蘇聯海軍總司令官 고르슈코프는 말한다. 그는 또 『蘇聯함대는 우리黨 우리國家의 政策을 받들어 地球上의 모든 地域정세를 安定시키는 要素이다. 蘇聯함대는 平和와 各國국민간의 友好關係의 固定化, 帝國主義國家의 侵略防止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한다. 對아시아 進出등 海軍力の 存在는 蘇聯의 世界戰略上 중요한 手段이라는 뜻이다.

蘇聯海軍의 平時 戰略目標와 그 行動에 대해 西獨軍事評論家 포사는 다음 몇가지로 要約한다.<sup>3)</sup>

① 軍事力の 誇示, 友好國에 대해 不穩한 情勢를 造作함으로써 蘇聯의 對外戰略인 「平和綱領」의 陰謀를 촉진한다.

註 2) 한국일보 78년 8월 5일자 「暴風몰아친 太平洋의 海上 戰略」

3) 『ソ連の 軍事戰略』 日本工業新聞社 刊

② 艦隊의 訪問으로 어디서나 行動하는 蘇聯의 海軍國으로서의 威信과, 西方側에 對抗하는 大國으로서 共產主義운동의 옹호자로 威力을 과시한다.

③ 鉍物자원이나 原材料, 특히 重工業과 軍需産業上 필요한 錫 螢石 텅스텐 크롬 등 資源을 확보하고, 이들 資源의 海洋조사를 맡는다.

④ 蘇聯과 友好관계에 있는 開途國의 '식량문제 改善을 위해 漁船團을 보호한다.

⑤ 諜報·轉覆 活動을 수행한다. (海上)

⑥ 西方側 선박의 航行감시와, 海上補給루트의 對戰時 및 非常時 擄占확보 등등이다.

이상의 설명을 다시 정리한다면 蘇聯의 海軍力은 ①海上에 있어서의 政治力이며 ②그 伸長은 크렘린의 世界戰略과 完全히 一致한 다는 結論에 이른다.

蘇聯함정에는 政治局員이 副艦長과 같은 級으로 승선하고 있으며, 戰術指揮와 學習指導체계가 二元化되어, 艦隊運用을 직접 政治局 要員이 담당<sup>4)</sup>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外交戰略 수행의 手段으로서 海軍力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註4) 刈部 勳 著 『米ソ海上戰略と 日本の 海上防衛』 教育社 刊

다른 한편 蘇聯 太平洋함대의 강화와 示威는 美國이 NATO 防衛와 蘇聯의 對아프리카 침투에 강경한 立場을 취하면서 부터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太平洋함대의 1次的 목적은 日本을 美國 및 中共과의 密着으로부터 떼어 美·日·中共의 軍事協力가능성을 예방하고, 2차적으로는 中共의 孤立化에 바탕해서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sup>5)</sup>

蘇聯太平洋함대의 모든 함정들은 短期決戰의 先制공격에 알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그 第一義的인 역할은 蘇聯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美國의 주요 목표에 命中하기에 앞서 美國戰略 폭격기 B 52가 反擊해오는 것을 막는데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太平洋연안 알래스카에 있는 美軍의 戰略航空基地에 先制공격을 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分析된다.

뿐만아니라 미사일 적재 潛水艦의 主攻 목표는 필리핀 오키나와 日本에 있는 美海軍·空軍基地를 겨냥하고 있음도 충분히 豫測된다.

蘇聯은 70년과 75년 두차례에 걸쳐 이미 東支那海를 중심으로 「오케안」 作戰이란 世界的 규모의 機動訓練을 실시했다. 이때 2백 50척의 함정이 參加했는데 주된 공격목표는 ①自由世界の 시·레인, 즉 商業動脈차단과 ②대규모紛爭時 美軍介入과 作戰능력의 교란을 겨냥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②의 경우와 유사한 모델로 蘇

註 5) 中央日報 1976년 5월 23일 社說



海軍의 2차대전 당시 발틱 및 黑海에서 獨逸軍의 海上輸送을 阻止시킨 防衛作戰을 들 수 있는데 蘇太平洋함대의 이와같은 戰略목표가 효율적으로 수행될때 美·日을 포함한 아시아국가의 打撃은 대단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蘇太平洋艦隊는 作戰수행에 있어 몇가지 장애要因이 없지 않다. 첫째는 太平洋進出의 出口가 日本과 韓國에 의해 막혀 있다는 점과, 장거리航海를 지원하기 위한 中繼基地가 확보돼 있지 않다는 두가지이다. 後者の 장애를 打開하기 위해 台灣은 蘇戰略上 필수적인 地点에 있다. 그러므로 蘇聯은 앞으로 台灣에 接近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 바. 蘇聯外交의 特性

2次대전이후 蘇聯外交는 유럽에서의 戰後 現狀유지와 安全보장의 확보를 최대과제로 삼아왔다. 이를 위해 蘇聯은 美國과의 平和共存을 政策추구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나 브레즈네프政權의 데탕트政策은 실은 全面核戰이외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西方側체제를 붕괴시키려는데 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또 맞추어 왔다.

그동안 蘇聯의 海軍力증강과 그 國軍協定체결의 意圖, 그리고 궁극적인 集團安保체제의 형성 움직임을 볼때 蘇聯外交의 本質을 다음 몇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sup>1)</sup>

첫째 蘇聯外交는 攻擊的이며 팽창주의적 야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註1) サンケイ 1977년 5월 2일

이것은 帝政러시아의 東方・南進政策으로도 이미 드러나 있다. 즉 蘇聯의 전통적 세력확장욕과 共產主義이 대을로기에 攻撃的本質이 결합된 것이다. 蘇聯은 2차전 이후 日本 면적의 2배에 가까운 領土를 획득했을뿐만이 아니라 東歐수개 국을 衛星國化하여 外交 軍事的 主權과 獨立權을 박탈했다. 에스토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틱 3國을 獨立시켜준다고 約束해 놓고 이를 蘇聯領에 編入시킨 것은 그 端的인 例이다.

또 蘇聯은 新生아프리카를 弱小國에 經濟원조를 미끼로 外交침투를 하여 共產主義 생활양식을 강요하고 있다.

蘇聯外交의 두번째 특성은 軍事力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平和를 말할때 蘇聯은 이를 「念願」 또는 「追求」하는 것이 아니라 「鬪爭」을 통해 「爭取」하는 방식을 취한다.

蘇聯 정부의 刊行物이나 論文 發表文을 보면 戰術 戰鬪 투쟁 전선이란 용어를 흔히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레닌 이후 역대의 蘇聯지도자가 軍事와 政治개념을 따로 떼어 생각하지 않고 軍事力을 政治的 목적에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세계의 특징은 蘇聯은 세계각국에서 「力關係」의 追求를 중시하는 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蘇聯은 敵과 同志와의 「力」關係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그때 그때의 狀況에 맞추어 戰術을 교묘하게 이용한다. 蘇聯의 최종목표는 世界の 共產化에 두고있으나 攻撃과 방어, 前進과 後退전술을 적절하게 활용한다. 一步전진을 위해 一步후퇴하는 전술을 잘 이

용하는 것이 蘇聯外交와 軍事戰略 방식의 하나라

이와같은 특성은 레닌이후 不變의 藝術로 定型化했으며 이래서 軍事力은 外交침투의 가장 有效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네째 蘇聯外交의 協商방식은 非妥協的이며 相對方으로부터 一方的인 讓步만을 받아내려고 한다.

그리고 蘇聯은 일단 實力으로 얻어진 것은 결코 交渉의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것이 철저한 原則으로 돼있다. 이를테면 冷戰의 초점이 됐던 베를린問題는 어느새 「西베를린問題」로 국한되게 되었고 東베를린 문제는 아예 交渉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蘇聯外交의 두번째 特性, 즉 軍事力을 배경으로한 政策중 代表的인 例로 이른바 「핀란드化」現象을 들 수 있다.

2차대전때 北歐 핀란드는 주변의 어느나라와도 同盟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蘇聯은 이러한 핀란드를 두번이나 침략했다. 1939년 11월의 겨울戰爭과 1941년의 繼續戰爭이 그것이다.

겨울戰爭에서 핀란드는 만네하임將軍의 지휘아래 스키部隊등 地上軍을 주축으로 蘇聯軍과 싸웠으나 이듬해 3월 降伏하여 蘇聯과 平和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결과 핀란드는 國土의 10%, 전체國民의 12%가 사는 南部領土를 蘇聯에 割讓해 주고 말았다.

그런데 41년 핀란드는 나치 獨逸의 要求에 굴복, 北部 핀란드를 獨逸軍의 주둔지로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자 蘇聯은 즉각 반발해서 핀란드에 다시 공격을 加해 「繼續戰爭」을 일으킨

것이다. 핀란드軍은 한때 蘇聯에 割讓했던 南部領土를 탈환했으나, 44년 蘇聯軍의 침투공세에 대항하지 못해 마침내 두번째의 굴욕적인 굴복을 하고야 말았다.

이로써 핀란드는 蘇聯과 休戰條約을 맺고 핀란드의 南部지방 領有를 再確認해준 외에 首都 헬싱키에서 가까운 지역에 軍事基地를 제공해 주는 신세로 떨어졌다. 거기에다가 핀란드로서는 蘇聯에 대해 2억5백만달러의 賠償金까지 지불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차례의 戰爭에서 핀란드가 蘇聯을 침략하지도 않고, 蘇聯의 敵國과 同盟關係를 맺거나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蘇聯側은 領土를 요구하고 賠償金까지 강요했다는 점이다. 그뿐만 아니라 蘇聯은 핀란드에 대해 앞으로 武裝兵力을 4만명 이하로 제한하도록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그후 핀란드는 사실상 蘇聯의 軍事 外交的 壓力과 영향력 아래 놓여 있게 된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이 「핀란드化」 현상에서 볼 수 있듯, 蘇聯은 그들의 戰略的 목적을 위해 제 3國에 무자비한 壓力을 加해 軍事外交權을 뺏어 왔다.

蘇聯은 平和共存 정책을 干판으로 내걸고 이를 위해 軍事力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西獨의 軍事評論家 군타·포사장군은 蘇聯의 「平和綱領」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実行단계가 있다고 설명했다.<sup>2)</sup>

註 2) G. 포사著 郷田 豊訳『ソ連の軍事戰略』 日本工業新聞社 刊  
著者は NATO 情報部長, 西獨國防省情報部長을 歴任하고, 現在 基督教民主同盟(CDU) 軍事顧問

① 제 1 단계 = 1975년 헬싱키 全歐安保·協力會議의 조약체결로 이 단계는 이미 완성되었다. 이 단계에서 蘇聯의 東歐圈지배와 바르샤바同盟체제에 대한 국제적 公認을 받았는데 世界軍事強國으로서의 地位확보는 이 단계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② 제 2 단계 = 蘇聯은 이 단계에서 제 3국 침투에 대한 노골적인 意圖를 보이면서 「平和綱領」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유럽에서 NATO 弱化와, 아프리카에 대한 본격적인 進出이 이 단계에 속한다. 2 단계에서 蘇聯은 軍備확장과 軍事力의 優位확보를 겨냥하고 있으며, 核戰에서 살아남기 위한 戰略추구에 집중한다.

③ 제 3 단계 = 유럽에서 蘇聯세력권을 확장하기 위해 軍事力을 뒷받침으로 計劃 經濟와 表裏가 다른 戰略행위 및 理念 투쟁에 목표를 둔다. 이 戰略단계에 따라 蘇聯은 中·東部 유럽 6개국을 軍事的 수단으로 그 勢力圈下에 두었고, 東歐, 폴란드, 헝가리 및 체코의 反蘇폭동을 正規軍을 동원하여 鎮복시켰다.

蘇聯은 軍事力을 배경으로한 이 팽창戰略으로 유럽에서는 50만 平方km의 領土와 2천 4백만의 人口를 그 지배권하에 두게 되었으며, 핀란드를 제외한 1백만 平方km 이상의 領土와 9천만명의 人口를 그 영향받는 그늘에 두고 있다.<sup>3)</sup>

蘇聯은 東쪽으로는 蒙古에서 日本北方의 千島列島까지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으며 현재 쿠바로부터 아프리카의 기니아 앙골라 모

註 3) Ibid.

잠비크 이디오피아 까지 軍事要員을 파견하고 있고, 蘇聯海軍은 세계 주요해역에 그 힘을 과시하고 있다.

美·日·中共 3國協調 체제에 대한 반발로 蘇聯은 이러한 戰略 목표를 더욱 가속화 시킬 것으로 分析된다.

그러나 蘇聯의 세력확장은 美國과의 데탕트 체제가 근본적으로 붕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追求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 3國協力체弱화工作과 對日接近試圖

蘇聯의 對日外交는 현재까지 中·蘇관계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蘇聯의 주요목표는 日·中共접근을 저지하고 日本을 그들의 集團安保 틀속에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蘇聯은 시베리아開發문제와 北京領土, 北海의 日本어선 漁撈權보장 日·蘇 平和條約 등을 놓고 日本을 유도해왔다.<sup>1)</sup> 이것은 아시아에서 中共을 제쳐놓고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취하려는 戰略이다.

60년대 까지만 해도 美·日安保條約을 蘇聯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했던 모스크바는, 中共과의 이같은 外交 이니셔티브를 위해 이條約의 지속을 희망하는 태도로 전환했다.

日·蘇간에 論議의 대상이 되고 있는 北方領土는 2차대전末 蘇聯이 對日宣傳布告와 함께 占領 구나시리, 예포로후, 하보마이, 지코딘 등 4개 島嶼이다. 日本은 샌프란시스코條約에서 南部사할린 및 千島

註 1) 金学俊著 『韓國問題와 國際政治』 博英社 刊.

列島の主權은 포기했으나 이 지역의 歸屬문제는 未解決상태이므로 蘇聯은 반환요구에 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1945년 당시까지 有効했던 日・蘇中立條約을 蘇聯이 위반, 侵入했고, 南사할린 및 千島列島에서 제외된 諸島嶼를 蘇聯이 占領 編入했기 때문에 이 北方領土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對蘇관계의 正常化 즉, 平和條約에 合意할 수 없다는 基本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蘇聯은 이에 대해 알타協定 포스담宣言과 샌프란시스코條約 등 諸條約과 協定에 의해 北方領土는 論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日本이 70年初에 中共과 修交할 外交展開에 나서자 蘇聯은 領土문제는 外交上的 問題로 신중히 검토하겠다(1971년 9월, 코시킨)고 발언한후 그로미코의 訪日을 계기로 平和條約 교섭 재개를 日本과 합의하는(72년 1월)등 종래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즉 日・蘇協商이 難航을 거듭하고 蘇聯이 日・中共의 接近을 견제하기 위해 對日軍事壓力을 加하는 가운데 마침내 日本은 78년 中共과 平和友好協定을 체결했다. 이로써 蘇聯은 對日關係에 있어 현재 中共의 守勢에 선 편이다. 말하자면 對日關係에 관한 한 中共에 外交的 이니셔티브를 뺏긴 셈이다.

한편 中・蘇의 利害關係가 相衡하는 東南亞에 대한 日本의 政策 목표는 어떤 것인가. 東南亞는 日本의 경제발전상 필수적인 原料, 市場, 資本輸出 면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더하고 있다. 이블테면 ASEAN 지역에서 생산되는 天然고무의 98%, 錫의 96%는 日本市場에 판매되고 있다. 85년에 이르면 ASEAN의 全輸入品중 50

%가 日本에서 輸入되고, 全輸出의 30%가 對日輸出에 依存하게 되리라는 전망이다.<sup>2)</sup>

그리고 日本의 전체 交易量 40%, 原油의 80%가 馬六甲海峽을 통해 日本에 이르고 있으므로 東南亞의 安全은 곧 日本의 安保에 있어 절대적인 要素라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때 日本의 東南亞開發構想 또는 東南亞開發基金 計劃은 이러한 背景에서 비롯된 것임은 말할 필요도 없다. 때로는 日本의 급속한 東南亞進出이 현재 各國으로 부터 심한 반발을 일으킨 경우가 있기도 했다. 하나 蘇聯의 軍事力 增加와 베트남을 앞세운 外交침투는 앞으로 日本의 安保와 經濟 兩面에 심한 타격을 입히게 될것은 물론이다.

蘇聯은 反蘇 포위망의 性格을 가진 美·日·中共 등의 結束을 弱화시키기 위해 對日接近을 今後 더욱 강화한 것이 예상된다. 그와같은 전망은 79년 5월 24일 訪日중이던 蘇聯共産黨 機關紙 프라우다의 編輯長 빅토르·G·아나프시에프가 記者會見에서 한 發言으로 類推된다. 그의 發言중 중요한 대목은 ①蘇聯은 日·中共 條約을 日·蘇관계 發展에 중대한 障礙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②日本은 資源이 없으나 西베리아에 資源이 풍부하므로 그 開發을 위해 日·蘇 양국의 協力이 필요하다는 것들이다.

그동안 日·蘇관계의 冷却원인은 日·中共平和友好條約의 反霸權조항 때문이며, 蘇聯當局이 이를 正면으로 공격해 왔기때문에 그의

註 2) 世界週報 1979.1.9. 『日本の アジア政策』



이러한 發言은 전후 모순되는 것이 아닐수 없다. 蘇聯의 책임있는 地位에 있는 사람이 이같이 日本에 柔和的인 태도를 보인 것은 日本의 中共傾斜와 密着을 견제하기 위한 수작으로 해석된다.

이같은 蘇聯의 모순된 対日자세를 볼때 아시아에서 中共勢力을 견제하고, 日本의 政治的進出 특히 制武装을 사전 예방하여 美·日·中共 등 3角協力体制를 無力化 시키는데 対日 接近이 필요한 戰略이라고 판단할 때는 蘇聯은 현안의 北方領土를 日本에 條件附 로 讓步할 수도 있다는 태도로 나올 可能性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sup>3)</sup>

이 문제에 대한 자고리아 教授의 다음 論文은 매우 示唆的이다.

『中·蘇紛争으로 利得을 본것은 日本이다. 中·蘇 양국은 日本을 서로 자기쪽의 友好国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모든 분야에서 경쟁을 했다. 日本은 이미 이 틈바귀에서 교묘하게 均衡을 유지했다. 이를테면 日本의 무역 수준은 그사이에 史上 最高에 이르렀고, 앞으로 10년동안 수백억달러의 利得을 누릴 것이다』

『日·中共 平和條約 체결이후 日·韓關係는 惡化되었으나 이것은 아마도 一時的 現象으로 보아진다. 蘇聯은 日本에 대해 앞으로 더이상의 壓力을 加하기보다 도리어 対日關係를 改善할 가능성이 클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蘇聯이 対日壓力을 강화하는 것은 이미 逆效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註 3) 『政經研究』 1979년 2월호 『蘇太平洋艦隊의 航跡』

日・中共條約이 체결된 이상 蘇聯이 취할 가장 有力한 行動目標은 日本으로 하여금 시베리아開發에 더 많은 投資를 하도록 誘導하는 일이다. 蘇聯은 日本이 이처럼 對蘇經濟協力을 확대할 경우 그것은 日本이 中・蘇 양쪽에 對해 똑같이 均衡政策을 계속하는데 關心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내세울 것이다. 다시말해 蘇聯이 外交에 能하다면 그들은 日・中共條約으로 얻은 機會를 이용하여 日本으로 하여금 蘇聯에 새로운 經濟的 양보를 하도록 壓力을 加하는 일이다. 그러나 蘇聯이 이처럼 능숙하게 日・中共條約에 對應할지 그 가능성은 오히려 弱하다.

蘇聯은 日本에 對해 적나라한 壓力戰術을 계속 使用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蘇聯은 스스로 願치 않는 결과, 즉 日本이 對美・中共關係를 더욱 強化시키는 결과가 된다. 이것은 다시 아시아에서 蘇聯을 한층 孤立상태로 몰아 넣을 수 있다.]

要件대 ①日本이 앞으로 對蘇關係를 惡化시킬 경우 日本은 相當한 危險을 각오해야 한다. ②日・蘇・中共關係는 가까운 장래에 根本的인 變化가 없을 것이며 ③日本은 中・蘇와 等距離 關係를 유지함으로써만이 利益을 求할 수 있다는 것으로 集約된다.

그런데 여기서 問題는 日本의 시베리아開發 參與는 결과적으로 蘇聯 極東 軍事力의 強化를 뒷받침해 준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구심은 蘇聯이 84년을 完工목표로 서두르고 있는 제2시베리아鐵道건설공사가 최근 全區間의 3분의1이 넘는 길이의 레일 구설을 마치면서 부터 日本내에서 제기되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sup>4)</sup>

제 2 시베리아 鐵道는 바이칼湖 北쪽 우스트쿠트를 起點으로 하여 凍土지대와 針葉樹지대를 뚫고 아무르江 流域에 있는 極東의 妥衝地 콤소몰스크 까지를 잇는 全長 3천 1백 45km의 大動脈이다. 이 공사는 총공사비 1백 50억달러를 投入한 蘇聯의 世紀的大工事로 크렘린의 現지도층은 政治生命을 걸고 추진하는 一大役事이다.

이 鐵道건설 計劃은 기존 鐵道가 中共과의 國境線에 인접해 있고 有事時 中共에 의해 차단될 危險과 취약성이 있어 이에 대비해 별도로 건설하는 것으로 79년 2월 中·越戰때는 蘇聯이 完工된 이 鐵道部分을 軍需물자 수송에 이용했음이 美軍의 첩보衛星에 의해 드러 났다는 것이다.

만일 제 2 시베리아 鐵道가 完成되면 蘇聯의 西部에서 太平洋연안으로 兵力, 戰車, 연료, 軍需物資 수송능력은 현재의 두배로 늘어나 80년대의 蘇聯極東군사력은 대폭 증강되리라는 것이 日本防衛庁당국의 判斷이다.<sup>5)</sup> 그렇게 될 경우 美·日의 시베리아開發計劃 參與는 蘇聯의 經濟, 軍事的 잠재력을 강화시키고 나아가 蘇聯으로 하여금 軍事施設 建設에 專念하게 한다는 것이다.

蘇聯은 제 2 시베리아 鐵道の 建設에 대해 天然가스 開發과 東部 시베리아地方 開發이 主된 目的이라고 내세우고 日本을 이 計劃에

註 4) 合同通信 1979.4.23 外信便

·5) 東京新聞 1979.4.21

적극 參與토록 誘導하고 있다. 그러나 第2 시베리아 鐵道の 완성은 蘇聯의 極東무역로의 開通이라는 의미를 넘어 國際軍事, 政治上에 큰變化를 초래하여 極東에 대한 중대한 군사적 위험 要素가 될 것으로 보고 美·日은 이미 약속한 시베리아 開發 投資문제를 개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타스通信은 최근 美·日 양국에 國家간의 約束위배라고 비난하고 있으나 美·日 두나라의 投資와 技術의 參與없이는 中斷될 수 밖에 없다.

美國은 최근 시베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등 開發投資에 소요되는 政府借款금지 조치를 내렸고, 日本은 시베리아의 石炭 5천억톤 저장시설과 製作所 등 종합工業團地건설·권유도 거절했다. 물론 이것은 中共을 자극한다는 이유가 背景에 깔려있다.

#### 아. 台灣의 戰略的 價值

蘇聯外交의 中心은 軍事戰略이 優先하고 있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바 있지만 여기서는 그러한 戰略構想이 相對的으로 아시아 各國의 警戒心을 높여 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가령 日·中共條約의 반발로 蘇聯은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을 맺었으나 이것은 과연 모스크바의 東南亞進出政策에 有効한 結果만을 가져왔겠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있다. 蘇·越條約은 軍事協力문제에 대해 明示하지는 않았으나 事實上의 準軍事同盟의 性格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ASEAN 諸國은 對蘇警戒心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蘇·越條約직후 이 지역 國家의 反應과 聲明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台灣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美·中共 修交에 의해 台灣은 中共領土의 一部이며, 台灣문제는 中國의 内部問題임이 확인되자 自由中國은 軍事, 外交的 孤立에서 벗어나기 위해 蘇聯과 接近할 可能性을 배재할 수 없으리라는 성급한 判斷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추측은 오히려 美國이 自由中國에 最新전투기를 援助할 計劃임이 보도되고, 中國의 指導部가 統一後 台灣의 政治社會體制는 存続시킬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實現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判斷하는 좋은 資料가 된다.

현실적으로 蘇聯의 對아시아進出에 있어 台灣은 그 戰略的 價值가 매우 크다. 무엇보다 蘇聯의 極東艦隊가 그 作戰半徑을 擴大하고 平素의 활동을 강화함에 있어 台灣의 地政學的 位置는 必須的이다. 蘇聯極東艦隊는 페르시아灣과 中東地方까지 守備範圍를 넓히고 있는 美7艦隊에 對應하기 위해서 太平洋으로의 南下가 불가피하고 太平洋에 基地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台灣은 이 條件에 맞는 海軍基地로는 最適이며, 旧日本海軍이 台灣海峽의 澎湖諸島를 天然의 軍港으로 삼았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이다.

蘇聯이 台灣의 戰略的 價值를 重視하는 것은 첫째 中共包圍網을 한층 強化할 수 있다는 점과, 둘째 台灣海峽을 이용하는 日本의 原油탱커등 輸送船을 위협, 日·中共密着을 견제할 수 있다는 利點이 있고, 셋째 印度洋進出을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自由中國으로서는 中共이 台灣에 대한 壓力을 強化할 경우 蘇聯

接近의 길을 모색하여 對中共경제에 活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自由中國은 長期的으로 蘇聯에 接近하기 보다 美·日과의 經濟協力을 더욱 擴大하는 것이 安保上 有利할 것이기 때문에 台灣·蘇 接近 가능성은 현재로는 기대하기 어렵다.

더우기 自由中國이 모스크바와 接觸할 가능성이 엿보이면 同盟國인 美國의 立場에서는 座視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점을 경계하여 美國은 對中共修交이후 自由中國에 대한 投資를 더욱 확대하여 台灣의 不安感을 減少시키는데 게을리 하지않고 있다. 美·中共修交이후 4개월 동안 台灣에 대한 外國人 및 華僑의 投資額은 총 1억 3천만 달러로 이것은 78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1백 91%가 늘어난 액수이다.<sup>1)</sup> 外國人 投資者란 대부분이 美國을 말한다. 投資내용도 과거에는 觀光, 서비스分野가 주축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石油化學 電子제품, 金屬제품 등 資本 技術集約사업이 主宗을 이루고 있음이 統計上 나타나고 있다.<sup>2)</sup>

만일 蘇·台灣關係가 正常化할 경우 北京은 모스크바와의 關係를 斷絶하거나 非正常化하게 되고, 나아가 美國은 카터大統領의 政治失策으로 발전하여 그의 再選을 不可能케 하는등 연쇄적인 事態를

註 1) 中華民國行政院 經濟部 統計資料.

2) 『政經文化』 1979년 8월호. 筆者의 「安定과 成長의 台灣모델 -有感」

빛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지만 蘇聯의 아시아進出이 이 지역의 勢力均衡을 흔들 우려는 적지 않은 것으로 判斷되나 蘇聯 外交에는 몇가지 制約要因이 있다는 것을 注目해야 한다.

첫째, 軍事力이외에는 外交上의 수단, 즉 影響力擴大의 手段이 없다는 사실이다.<sup>3)</sup> 蘇聯의 政治이데올로기도 이미 同盟國에서 수차 信賴의 基盤을 잃고 있으며, 對外 經濟協力面에서도 그 戰略的 목표를 제대로 追求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例컨대 東歐國에 대한 支配力의 弱화가 그것이다.

또 蘇聯의 對外經濟協力은 그 條件이 까다롭고 不利해서 開途國으로부터 적지 않은 反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蘇聯이 아시아에서 影響力을 擴大할 수 있는 唯一한 手段은 太平洋 艦隊와, 中·蘇 國境지대에 배치한 兵力뿐이다. 影響力 擴大를 위해 현재까지 軍事力에만 과도하게 依存했기 때문에 軍事的 프레젠스를 政治的인 力量으로 轉換하기 어려운 弱點이 있고, 제 3 國과 經濟·文化·政治 交流능 有機的인 協力關係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蘇聯經濟의 沈滯가 문제이다. 즉 현재의 經濟力으로 蘇聯의 軍事力 팽창을 어느 수준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가 注目된다.

蘇聯은 日本의 2배에 이르는 2억 6천만의 人口를 갖고도 國民 總生産은 日本과 大差없다. 이정도의 國民總生産으로 美國을 능가

註 3) 世界週報 1979·1·9. 字

하는 막대한 軍備를 유지하는데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대한 軍事力을 유지하는데 國民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말할것도 없다. 거기에다 蘇聯은 쿠바軍을 傭兵하고 아프리카 大陸에서 反亂세력을 지원하며 軍事武器를 지원하는데 相當한 軍事費를 쏟고 있다.

더우기 注目할 것은 蘇聯의 經濟成長率이 70년대이후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人口의 3분의 1이 農業에 종사하고 있고 輸出入구조의 태반이 1次產品으로 이루어지고 技術落後와 勞動의욕의 감퇴 勞動의 質的 低下로 인한 當然한 結果가 아닐 수 없다. 蘇聯의 經濟成長率이 1950년대까지 平均 5.8% 였으나 60년대에 접어들자 5.1%로 떨어지다가 70년에서 75년까지 年平均 3.7%에 머무르는 不振을 보였다. 이 추세는 80년대에 이르면 年平均 2%내지 2.5%로 더 떨어지리라는 것이 西方專門家の 分析이다.<sup>4)</sup> 이와같은 生産性低下는 共產主義 체제에 內在하는 統制經濟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共產主義經濟가 계속되는한 改善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1980년대에 들어서면 蘇聯의 방대한 軍事力유지는 어렵다는 結論에 와닿는다. 특히 80년대 後半부터 美國을 비롯한

註4) 그런데 美CIA가 최근 美議會秘密聽聞會에 報告한 資料는 80年代 蘇聯經濟成長率은 1%이하의 停滯에 빠질 것으로 豫測하고 있다.

(サンケイ 1979.7.23)



NATO 同盟國은 軍事力면에서 蘇聯을 능가하는 時點으로 보고 있으므로 經濟사정 惡化와 國民生活을 희생한 軍事力增強은 限界點에 부딪치고 말것이다. 그렇다고 軍事費를 줄일 경우 蘇權力內에서 무시할 수 없는 軍部勢力의 抵抗에 부딪칠 것은 물론이고, 아닌게 아니라 西方보다 優越한 軍事力을 유지하기란 더 곤란한 일이다. 蘇聯 經濟와 관련하여 決定的인 弱點은 食糧 특히 穀物의 不足이다. 蘇聯은 氣候가 좋은 條件하에서는 대체로 食糧을 自給하고 있지만 氣候사정이 좋지 않으면 外國에서 大量輸入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이다. 美國이 對蘇데탕트 協商과정에서 農産物의 對蘇輸出을 미끼로 내걸었던 것은 蘇聯의 이런 弱點을 손아귀에 넣고 있기 때문이다.

蘇聯이 데탕트를 깨고 西方國과 對決하는 狀況에 이른다면 이 穀物은 蘇聯에 致命打를 안길 수 있는 要因으로 作用할 것이다.

현재 蘇聯의 國民總生産對比 軍事費는 美國의 5%에 비해 12~13%에 이르고 있지만 80년대에는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여 이러한 軍事費의 重壓은 戰爭에 대비한 穀物의 備蓄을 사실상 不能케 하고 있다.

또 資源 역시 西方側과 마찬가지로 長期開發計劃이 불가피한데 이에 協力を 求하고 있는 日本이 北方4개島嶼의 領有權문제로 「日·蘇 長期經濟協力協定」 체결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sup>5)</sup>美·日

註5) 京郷新聞 1978.9.8.

의 協調없이 큰 차질을 免할 길이 없을 것이다.

세째, 蘇聯이 当面한 또 다른 問題는 指導者 交代問題이다. 현재 黨書記長 및 最高會議幹部會議長·軍最高司令官 등 黨·政府·軍 要職을 장악한 브레즈네프는 健康이 惡化되어 그 후계자문제가 큰 關心事項은 두말할 것도 없다. 포스트·브레즈네프의 蘇聯權力을 繼承할 人物은 아직 뚜렷이 浮刻되지 않고 있으며 스탈린死後의 경우처럼 當分間 集團指導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指導者 交代문제는 蘇聯의 對外推進力을 弱化시키는 원인이 될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蘇聯은 東歐衛星國으로 부터의 不滿도 当面한 풀칠거리의 하나이다. 衛星國內부의 不平과 不滿은 戰後 東獨각지에서 야기된 反蘇폭동, 1956년의 헝가리事件 그후 체코事件을 보더라도 언제나 폭발할 潛在要因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다.

#### 자. 結 論

위에서 蘇聯의 對아시아 戰略 기본 構圖와, 中·蘇對立의 尖銳化 과정에서 蘇聯이 아시아에서 追求하는 政治·軍事·外交的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았다.

즉 中共과 蘇聯은 아시아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兩大強國이며, 아시아의 정세는 앞으로 이들 두나라의 勢力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될 것은 毫論이다.

그러나 中·蘇關係에 영향을 미칠 要素는 美國이 活用할 蘇聯

및 「차이네·카드」라고 할 수 있으며, 蘇聯의 對中共자세는 美·日·中共 등 3國 協力관계의 密度에 크게 좌우되리라고 전망된다.

蘇聯의 對아시아戰略이 겨냥하는 것은 세력팽창과 이를 위한 對中共封鎖에 있다. 이 戰略의 追求를 위해 蘇聯은 地中海에서 페르시아灣 印度洋을 거쳐, 베트남을 中繼基地로 하여 西支那海와 台灣해협 그리고 東海를 연결하는 對中共封鎖網을 完成하려 하고 있다. 地中海에서 印度洋을 거쳐 베트남까지는 黑海艦隊가 담당하고 西印支海에서 東海까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基地를 둔 極東艦隊가 담당하고 있다. 최근 極東基地에 정박한 蘇聯의 最新銳 키에프級 航母 민스크(4만톤)号는 이러한 包圍網 구축을 試驗하기 위한 「大航海」(蘇 國防省 機關紙 『붉은별』의 표현)이자, 艦隊外交의 示威라 할 수 있다.

베트남의 軍事基地化說은 이러한 戰略網을 완성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淸蘭灣의 軍事基地使用權 확보 여부는 이런 뜻에서 注目되며, 현재로는 베트남이 對蘇條約에 의해 통상적인 연료供給을 위해 蘇聯선박이 寄港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美·日·中共 3國 協力体制 結束이후 蘇聯이 이른바 反霸權전선에 어떻게 対応할 것인가가 쏠점인데 우선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想定하면 다음과 같다.

그하나의 選択은 蘇聯의 유일한 外交수단인 軍事力을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면서 印支半島와 東南亞에 대한 勢力擴張을 피하면서 西方의 저항이 弱할 것으로 보이는 第3世界에 적극적으로 침투하리라는 豫想이나.

그 방식은 앞서도 지적한 것 처럼 2국間協定을 맺어 침투기반을 마련한 후 궁극적으로는 集團安保體制網으로 서로 연결하는 戰略을 구사하게 될 것이다. 蘇聯은 바르샤바條約 이외에는 多國間條約이 없다. 이점은 NATO以外에도 OAS (美洲相互援助機構, 22개국), ANZUS (太平洋安保條約, 3개국), CENTO (中央條約機構, 4개국), 東南亞集團防衛條約 (77년 機構는 解体됐으나 條約은 繼續, 7개국) 등 많은 集團安保機構가 美國에 비하면 현저한 劣勢에 있다.

또 蘇聯의 同盟國들은 例컨대 쿠바·베트남·北韓·아프리카국가 등과 같이 대부분 低開發國인 것이 그 弱點이다. 이것은 西側의 同盟체제가 工業國의 集合體인 점과 아주 대조적이다. 모름지기 2國間協定 체결에 의한 集團安保體制의 實現은 크렘린의 長期的 世界戰略의 일환이다. 72년 이라크와의 條約, 78년 베트남과의 條約 등은 그 代表的인 事例에 해당한다. 이런 方式으로 蘇聯은 이데올로기를 背後에 깔고 勢刀팽창에 注刀할것 같다. 아프리카는 이미 모스크바의 影響力하에 들어갔고, 中東協商이 美國의 独占的인 外交 이니셔티브에 의해 일단 타결되자 蘇聯은 內政의 불안한 제3세계와 아시아·中近東의 一部國家에 새로운 浸透를 企圖할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觀測이다.

蘇聯이 아시아지역에서 美·日·中共의 協力體制에 挑戰하는 方法은 이를테면 極東艦隊의 현저한 戰力強化, 中·蘇國境兵力增強, 베트남에 대한 軍事지원의 노골화, 東南亞 反政府세력의 武器지원과 鼓

舞선동, 이를 통한 西方 經濟權益침해의 側面지원, 反美·反日工作의 적극화 등을 들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戰略手段은 상당한 모험을 수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美·日·中共의 協力体制에 대한 挑発的 対応은 이들 3國의 對蘇危機感과 아시아各國의 蘇聯 경계심을 아울러 자극시켜 軍事的結束과 실질적인 軍事同盟化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蘇聯이 아시아에서 對蘇路線을 강화할 경우 對美데탕트를 쏘치는 결과가 되므로 유럽正面에서의 東·西對決을 각오할 자세가 아니라면 美·蘇和解体制을 깨뜨리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美國과의 關係가 惡化될 경우 自國의 破滅을 초래할 核戰이 불가피하면, 蘇聯은 그러한 모험을 각오하지 않는한 世界安全의 基礎가 돼있는 데탕트를 붕괴시킬 軍事的 挑發을 아시아에서 自制할 것이 예측된다. 하지만 中共의 對美·對日密着으로 中共의 實用主義지도자가 意圖하는 80년대의 軍現代화와 國防科學기술이 어느만큼 促進됐다고 判斷했을 때는 蘇聯으로서는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中共에 軍事力을 行使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sup>1)</sup> 고 전망하는 分析도 있다.

註 1) IISS (英國 國際戰略問題研究所) 제 20 차 年例總會에서의 옥스포드大學 크라이스트 처치教授報告書 「1980年代의 蘇聯에 對한 展望」

한편 蘇聯은 美·日·中共 3国協力体制에 즉각 挑戰하지 않고 美國과의 提携를 유지하면서 아시아諸国에 柔軟한 外交戰略을 展開할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79년 2월 泰國首相의 訪蘇초청, ASEAN 各국에 대한 援助공세와 文化 人事交流추진이 그러한 범주에 속한다. 다만 이 戰略方式은 一時的인 戰術轉換에 지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手段으로는 東南亞국가들을 美·中共에서 격리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東南亞지역은 현재 越南戰적후에 비해 政治정세와 經濟상태가 好轉된 상태에 있으며, 中·蘇의 경제적 對立관계 때문에 援助지원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아시아에 있어 蘇聯최대의 敵이 中共인 것은 中·蘇對立관계의 發展과정에서 이미 보아온 바와 같다. 그러므로 모스크바側은 日·中共의 平和條約체결은 蘇聯에 대한 公同연한 敵對行爲로 간주하고 있다.

蘇聯이 千島列島의 주둔 兵力을 增強한 사실이라든가, 日本으로부터 뺏은 北方 4개 島嶼에 航空機 滑走路와 港口 및 超大型 레이더基地를 건설하고 있는것도<sup>3)</sup>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해야만 할 것 같다.

註 2) 世界週報 1979년 2월 6일 号

3) 東亞日報 1979년 2월 9일

## 1. 美·中共軍事協力과 蘇聯의 挑戰

蘇聯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日本의 對中共經濟協력이 中共의 軍事力 강화에 이바지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相反된 主張이 있다. 즉 美·日·中共의 結束은 中共의 對蘇軍事力 劣勢를 補充해 준다는 주장<sup>4)</sup> 과, 美·日·中共의 軍事協力에는 限界가 있다는 주장<sup>5)</sup> 이 그것이다. 前者의 論拠는 軍事力面에서 對蘇劣勢에 놓인 美國은 中共의 軍事力強化를 지원해 줌으로써 이 지역의 힘의 均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는 反面 後者の 근거로는 아무리 外交的便宜에 의해 美·中共이 修交했다 하더라도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어제의 敵과 軍事協력을 맺는 段階로 발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前者의 경우 前美國防長官 제임스·슐레진저, 美大統領 安保담당 特別補佐官 브레진스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다. 이를테면 限定된 兵器를 中共에 제공하여 蘇聯의 作戰을 견제하자는 戰略構想이다.

이에 대해 後者の 主張은 ①美國이 最新式武器를 中共에 판매하는 것은 中共의 軍部를 만족시켜 美·中共利解의 기틀을 마련하고 ②蘇聯의 軍事力을 東北아시아에 묶어 놓아 蘇軍事力の 유럽 移動을

註 4) 例컨대 『統一政策』 1979年 第5卷 1号 吉昇欽 教授의 「美·日·中共 三角關係와 韓半島」

5) 서울신문 1979·4·21 字 社說.

막아 NATO 국가들을 安心시키는 効果를 거두게 될지는 모르지만, 中共의 政治權力이 反美的인 勢力에 넘어가거나 80年代後半에 中・蘇和解가 이루어질 경우 中共에 제공된 武器는 아시아의 美友邦과 美国자신을 겨냥하게 될 것이라는 理由를 들어 美・中共 軍事協力の 限界性을 강조한다.

그러나 本稿는 美国과 中共의 軍事協力は 實際로 政策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限定的이고 防禦用에 그칠 것이며, 결코 軍事同盟으로 發展할 가능성은 豫想할 수 없다는 主張을 堅持한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美・中共양국의 군사제휴는 美国이 不必需的 紛争에 말려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美国의 아시아不介入政策에도 어긋난다. 둘째 中共의 国内政治는 여전히 流動化하여 언제 美国에 反旗를 들지 알수 없다. 셋째 中共의 軍事力은 아시아의 美同盟国 또는 非共產國家에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蘇聯을 자극시켜 美・蘇・美・中共關係構圖를 惡化시킬 우려가 크다. 다섯째, 中共의 軍事力增強에 대해 日本의 憂慮가 높아질 경우 日本의 再武装을 초래케 한다. 이것은 결국 아시아국가의 中共에 대한 潜在力恐怖를 增大시키는 결과가 된다.

美・中共關係 正常화에 理論的 뒷받침을 많이 해온 것으로 評價받는 도크·바네트는<sup>6)</sup> 美国이 제 3국에 軍事지원을 해서 不

註6) 著書로 China Policy: Old Problems and New Challenges 가 있다, 그內容中 軍事關係部分은 Foreign affairs (1977年 4月号)에 發表되었다.



幸한 結果를 초래한 例로 다음 몇 가지를 들고 있다. 例컨대 美國은 모스크바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948년 이후 유고에 軍事援助를 주어 이에 반발, 蘇聯은 62년 이후 쿠바에 (核미사일 이외의) 軍事지원을 강화해 주는 結果가 되었다. 또 美國은 分明히 對 이스라엘 攻擧에 使用할 가능성이 있는 武器를 이스라엘의 反對에도 불구하고 아랍側에 원조해 주었다.

美·中共修交이후 실제로 兩國간에는 軍事協力문제가 打診되고 있는 듯하다. 가령 中共黨副主席은 79년 4월 中共을 방문한 美上院外交委員長 프랭크·처치에게 中共은 美國의 對蘇電子監視장치를 中共領內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말했다고 하며,<sup>7)</sup> 또 F15 F16 등 最新銳 美전투기를 中共이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밝힌 것으로 보도된 것등이다. 그러나 美國의 對中共 武器판매는 일단 議회의 審議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行政府가 議회의 全的인 同意를 얻어내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美國과 中共간의 軍事協력이 어느線까지 發展할 것인가는 앞으로 蘇聯의 팽창주의 戰略에 달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制限된 防禦用兵器에 그치리라는 것은 충분히 納得된다. 하지만 그러한 防禦用兵器도 결국 國은 中共의 軍事力과 對蘇戰力을 강화시키는데 利用될 것이 分明하므로 앞으로 美·日의 對中共軍事協力문제는 美·蘇, 日·蘇關係發展의 重大한 因子가 될 것이 확실하다.

註7) 京郷新聞 1979.4.20. 字

美·中共간의 軍事協同범위에 대해 前記 바네트 教授는 이렇게 말한다. 즉 『먼저 생각할 문제는 어떤 軍事的接觸을 試圖할 것인가이다. 가령 美·中共양국의 軍事高位당국이나 軍指揮官의 對話를 가질 것인가. 美國에서 行할 것인가 中共 또는 제 3국중에서 접촉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또한가지는 美國은 간단히 軍事目的에 轉用할 수 있는 情報나 設備, 이를테면 컴퓨터 제트機, 헬機등을 民間用으로 中共에 수출할 것인가. 워싱턴은 中共의 防衛計劃에 이용될 수 있는 機密情報, 예컨대 蘇聯의 軍事配置상황 또는 미사일 発射情報를 中共에 提供해 줄 것인가, 또는 한걸음 더 나아가 特種의 機密資料를 中共에 전달할 수 있는 特殊루트를 常設해 둘 것인가이다.

中共에 提供할 軍事品目중에 通信·人工衛星에 의한 偵察결과, 對潛艦用 水中音波探知機, 早期警報레이더를 포함시킬 것인가.

궁극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로는 美國은 蘇聯이 危險視하는 攻撃用 장거리 航空機나 미사일 開發技術과 같은 中共의 攻撃力 강화에 이바지 할 明白한 情報나 兵器를 輸出할 수 있는 것인가 이다』

그런데 現時的으로 美國은 유럽의 同盟國들이 中共에 間接적으로 軍事力지원을 해주려는 움직임에 대해 「暗黙의 承認」을 해주고 있다.

75년 12월 英國과 中共간에 볼스로이사의 스페이·엔진 生産 特許權 판매가 결정되었을 때 美國은 아무런 反對도 하지 않았다. 당시 COCOM (對共產國輸出統制委員會)에 의해 英國의 對中共 航

空機 엔진 판매는 事前許可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英國은 이에 대한 許可신청을 하지 않았고 美國 역시 이를 阻止하려고 하지 않았다.

또 西獨의 멧서쉬미트·부롬산가 B107型 헬리콥터 製作特許를 中共에 판매키로 협상했으며, 中共은 프랑스로부터 헬機와 미라주 戰鬪機 구매에 関心を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일이 있다.

어쨌든간에 美國이 유럽先進工業國의 對中共軍事장비 판매는 막기 어려우며 이런점에서 美·日·中共 3國의 協力体制은 앞으로 아시아 지역 情勢의 流動化를 초래케 하는 要因으로 지적해야 할것 같다.

## 2. 中·蘇 和解의 展望

그러면 앞에서 말한 中·蘇의 對立은 解消될 수 없는 것인가, 앞으로 양국간에 和解協商이 이루어진다면 關係改善은 어느 수준까지 이르게 될것인가, 美國이 그 世界戰略을 根本적으로 修正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中·蘇和解가 불가능한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問題接近에 앞서 中·蘇관계의 基本的구조 부터 파악할 필요가 있다.

中·蘇관계는 본질적으로 다음과 같은 性格과 요인을 複合적으로 안고 있다.

즉 ①民族的 對立= 내셔널리즘의 相剋( nation-to-nation conflict ), ②國家的 對立= 國家 이기주의의 對立( state-to-state conflict ), ③이데올로기의 對立= 教義上 異端的 同志간의 對立( party-to-party conflict ), ④政府間 對立= 外交上

의 對立 ( government-to-government conflict ) 등이 中・蘇對立  
관계의 基本이다.<sup>8)</sup>

첫째, 가장 뿌리 깊은, 宿命的 對立이라고도 할 nation-to-  
nation conflict는 지금까지 3백여년 동안 내려온 漢民族과 러  
시아民族의 對立이다.

이 對立史의 과정에서는 유라시아大陸을 지배해온 兩大民族 사이  
에 「中間地帶」로서 蒙古民族의 居住空間이 있었다. 그런데 이  
中間地帶의 확보를 둘러싸고 兩大國사이에는 끊임없는 對立과 不和  
가 잇달았다. 그러므로 ①의 對立은 결코 解消되기 어려운 特質을  
가졌다고 볼수 있다.

제 2의 state-to-state conflict는 國境이나 領土를 둘러싼  
紛爭이다. 이 역시 歴史的으로 오래 계속돼 왔지만 스탈린과 毛  
澤東의 등장으로 더욱 激化되었다.

제 3의 party-to-party conflict는 56년 이후 紛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데올로기 對立에서 양국共産黨간의 對立까지를 포함한다.

제 4의 government-to-government conflict는 黨의 리더십  
交替에 따라 可變的인 對立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볼때 「民族的 對立」으로서의 中・蘇紛爭 관계는 和解  
되기 어렵고 半永久的으로 계속될 전망이 확실하다. 그러나 「國  
家的 對立」관계로서의 中・蘇양국은 정치 경제 사회變動과 그 격

註 8) 中嶋領雄 著 『中ソ對立と現代』 中央公論社 刊

차 解消에 따라 接近이 가능하다.

華国鋒 鄧小平 체제 하에서는 현재 두나라의 國家關係와 黨關係는 엄격히 區別되고 있다. 이 역시 앞으로는 美·中·蘇의 力学關係에 따라 양쪽에 모두 不利하게 作用할 政治狀況의 變動이 생길 경우 和解를 위한 接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中·蘇紛爭과정이나 社會主義概念의 해석차이에서 보더라도 黨關係나 國家關係는 가까운 시기에 크게 改善될 전망은 없다.<sup>9)</sup> 이데올로기 路線을 둘러싼 對立 또는 國境問題를 위요한 對立은 雙方이 妥協에 의해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

兩國의 軍事的 긴장 역시 현재로는 완화될 기미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鄧小平은 國防, 科學技術, 農, 工業 등 4개부분의 近代化를 國家政策의 주요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그 목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對蘇關係의 改善보다는 美國과 日本을 중심으로한 西方先進工業國과의 交流 확대와 關係 개선일 것이다.

이러한 中·蘇對立의 背景하에 中共의 對外政策 전개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0년대 이후 中共의 對外戰略은 이른바 「第3世界論」에 기초를 두고 있다.

鄧小平은 현재의 世界情勢를 『天下大亂』으로 보고 世界의 각종

註 9) サンケイ 社説 1976년 11월 21일

政治勢力은 장기간에 걸친 힘과 鬭爭에 의해 分化와 再編成과정  
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情勢觀은 첫째, 『戰後의 一  
時期에 存在했던 社會主義진영은 社會帝國의 등장으로 더이상 存在  
할 수 없게 되었다』는 對社會主義觀과, 둘째, 『西方側의 帝國主義  
集團 역시 資本主義의 發展不均衡, 法則에 의해 四分五裂 되었다』  
는 對 資本主義觀에 그 기초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世界는 美·蘇 兩大國의 「第一世界」, 日本과 西歐 등  
의 「第二世界」,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프리카 등 發展途上國의  
「第3世界」로 区分된다는 것이다. 中共은 제3세계의 旗手이며,  
美·蘇 등 第一世界의 霸權主義에 반대한다는 것이 中共 對外戰略의  
基本이다.

中共은 蘇聯을 제일의 公敵으로 삼고 있으며 「新植民主義的 經  
제수탈」을 자행한다거나 「世界의 武器商」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이 제3세계論은 美·中共修交와 日·中共接近으로 修正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中間地帶論』 『第3世界論』 그리고 현재의  
『反霸權論』 등에 이르기까지 中共의 政治·軍事, 外交政策은 그 기  
초理論面에서 修正을 여러번 거듭해 왔다.

50년대의 中·蘇 蜜月期는 『美帝國主義』와 日本의 『軍國主義  
부활』을 비난했고, 中·蘇對立이 격화되자 이제 美·日과 關係改善  
을 맺고, 심지어 日本防衛力의 增強을 적극 支持하고 있는 形편이  
다. 中共은 이러한 對外路綫 變化에 대해 國際情勢에 順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中共은 蘇聯을 비단 理念上 또는 政治戰略上의 主敵으로 뿐만 아니라 軍事戰略上의 主敵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中共이 낭면한 近代化추진과 軍事戰略面에서의 對蘇劣勢를 만회하기 위해 美國과의 修交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그밖에 中共이 美國과의 修交에서 노리는 軍事的 목표는 다음과 같다고 할 수 있다.<sup>10)</sup>

①兵力을 中·蘇國境地帶에 移動하기 위한 것이다. 中共 兵力은 현재 台灣海峽 연안지대인 福建省에 陸軍 40개師團, 지원空軍부대 및 약 3백척의 小型함정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것은 自由中國의 大陸反攻에 대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美·中共修交로 台灣의 大陸侵攻 가능성이 弱화된 상태에서 中·蘇國境으로 移動이 시급하다. 유럽戰線으로 부터 中·蘇國境에 이동배치한 蘇聯 軍補強兵力 20~30만명과 對峙하기 위해서도 福建省주둔 兵力의 相當部分을 中·蘇國境과 印支半島方面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

② 앞으로 紛争要素가 잠재해 있는 中·越對立등을 위해 美國의 外交的 精神的援助와, 나아가 兵器援助의 필요성이 增大되었다.

③ 蘇聯軍의 滿洲占領 가능성에 대비해 滿洲에 美國의 대대적인 資本 및 設備投資를 끌어들이어 蘇聯이 對美關係를 고려하여 攻擊을 못하게 하고, 蘇聯의 侵略이 있을 경우에도 美國에 反蘇感情을 高潮시켜 中·蘇戰에 美國의 힘을 빌리자는 계산이다.

註 10) 那須 聖 著 『第3世界大戰は 始まつている』 サンケイ出刊  
刊

#### IV. 蘇聯의 韓半島政策 分析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은 주로 中·蘇關係에 從屬되어 있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蘇聯은 기본적으로 韓半島의 現狀固定化를 追求하고 있다. 蘇聯은 統一된 韓半島가 中共의 影響圈으로 들어가기 보다 分斷된 美·中·蘇 3國의 勢力均衡下에 유지되는 것이 有利하다고 判斷하고 있다.<sup>1)</sup> 이것은 同盟國인 北韓의 政策을 公同연하게 支持하면서도 韓國의 立場을 全적으로 無視하지 않는 태도표명으로도 알 수 있다.

7.4 共同 聲明에 의해 南北對話가 進行되고 있을 때 蘇聯은 南北韓이 「武力行使에 의하지 않고 平和的 解決」을 모색한다는 原則에는 찬성하는 듯 했으나 7.4 聲明 내용중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초월하여 하나의 民族으로서 民族的 大團結을 도모해야 한다」는 統一原則에는 同意하지 않는 듯 했다. 南北접촉에 관한 蘇聯 黨·政府機關紙 論調의 특징은 韓半島에 2개 政府가 存在한다는 사실을 認定하고, 南北간의 現狀유지와 平和交流에 의한 安定을 希望한다는 것이었다. 要컨대 南北關係가 民族統合으로 發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이 모스크바의 기본 意向이다. 이런 태도는 美·中共關係가 正常化됐다고 해서 修正될 素地는 없다고 보는 것

註 1) 金一平 著 『強大國政治와 韓半島』



이 學者들의 일반적인 見解인 것으로 分析된다.

南北韓 統合은 蘇聯이 現狀固定化를 추구하고 있는 獨逸로 하여금 統一욕구를 자극할 가능성이 없지않으므로 蘇聯은 韓半島의 現狀固着을 더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서 韓半島에 대한 中共의 利害關係는 더 緊密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中共의 韓半島에 대한 立場은 기본적으로 蘇聯과 크게 다른바 없으나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유지하는 것이 當面한 課題가 되어 있는듯 하다.

아시아에서 베트남, 東歐에서 알바니아를 잃은 中共은 對蘇外交均衡面에서 北韓을 그들의 勢力圈에 묶어두려고 애쓰고 있으며 戰略面에서도 北韓의 地政學的 위치는 中共에 필수적이다.

滿洲와 인접한 北韓의 鴨綠江은 中共에서 가장 발달된 공업지대의 閘門이며, 中共이 이러한 北韓을 잃는다는 것은 核시설이 있는 新疆이나 內蒙古를 상실당하는 것만큼이나 손실이 클 것이다.<sup>2)</sup>

이런 의미에서 北韓의 安保는 中共본토의 安保만큼이나 중요하다. 78년 5월 中共黨主席 華國鋒이 취임후 첫 海外나들이로 平壤을 訪問한 일이라든가, 이어 9월에는 副主席 鄧小平이 北韓을 방문한 사실, 그보다 앞서 文化革命이 끝나자 맨먼저 周恩來가 北韓을 순방한 事例등은 中共의 對外戰略에 있어 北韓의 重要성이 얼마나

註 2) 도날드·자코리아 教授의 發表論文. サンケイ 주최 심포지움. 「東北亞에 있어서의 새로운 平和構造의 追求」

큰가를 말해주는 端的인 증거라 하겠다. 中共이 최근 北韓에 대한 原油價格을 蘇聯의 절반값으로 줄이고, 각종 프로젝트에 協力하기로 했다는 것은, 아닌게 아니라 北韓을 모스크바 傾斜쪽으로 이탈케 하지 않으려는 企圖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美·中共修交는 종래 韓半島의 「東·西對立」위에 「中·蘇對立」의 激化란 要素를 더 追求함으로써 「東·東對決」로 그 解決을 더 복잡하게 만든 셈이다. 즉 蘇聯은 美·中共修交를 韓半島에 대한 이니셔티브와 영향력이 일단 弱화된 것으로 判斷하고 北韓에 대한 支援을 더 강화함으로써 자기편에 끌어들이려는 努力을 확대할 공산이 크다. 그것은 北韓에 대한 軍事援助의 擴大로 나타날수도 있고, 또한 國際外交 무대에서 北韓의 입장을 더 적극적으로 支持하는 方式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中·蘇의 對立的 경쟁 관계와 그 深化로 北韓은 도리어 이를 逆이용하여 中·蘇 양측에서 더 많은 支援과 協力を 얻어내려는 機會主義的 술다리기 外交를 펼 가능성이 큰 反面 外交選擇의 餘地가 더 줄었다고도 分析할 수 있다.

그렇다면 美·中共修交는 蘇聯이 韓半島 緊張緩和를 돕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인가. 첫번째의 假說은 北韓이 中共쪽에 더 기우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韓國과의 接近을 試圖할지 모른다는 점이다. 최근 모스크바의 韓國에 대한 「意味있는 자세」는 바로 이러한 추측을 한결 추측에만 그치지 않게 해준다.

두번째는 美·蘇 和解를 위해서도 蘇聯이 北韓의 行動에 自制를

加할 것이 아닌가 보는 見解도 없지않다. 이 점은 中共도 마찬가지 立場에 놓여 있다. 中共은 美國의 宗용을 받아들여서 北韓의 對南戰略을 억제하는 役割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中·蘇의 對北韓 影響力에도 限界가 있다는 것이다. 도크·베네트 教授 역시 強大国간에 韓半島 平和共存 문제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① 共產主義의 革命戰略 ② 中·蘇對立관계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中共은 美軍의 韓國주둔이 對蘇견제에 有利한 것으로 判斷하면서도 美軍의 全面的 철수를 요구하는 北韓의 對南戰略에 同調하고 있고, 또 蘇聯이 3 当局會議에 肯定的인 反應을 보이지 않는 것도 이런 脈路에서 理解할 수 있다.

결국 問題는 金日成의 태도 變化에 달려 있다고 結論지을 수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태도變化를 可能케 할 수 있는 것은 韓·美關係의 깊이와 密度라 할 수 있을 것이다. 韓·美關係의 結束이 深化되고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 對外的으로 確認되면 金日成은 韓·美關係를 試驗할 수 없을 것이다. 반대로 韓國과 美國 두나라의 結束이 弱化되는 것으로 外部에 投影된다면 北韓은 지금까지의 戰略을 바꾸지 않고 계속 對南革命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 要 約 文

美·日·中共 協調體制에 대한 対応戰略

### 1. 3國 協力體 結成의 背景

日·中共 平和友好條約締結과 美·中共 外交正常化는 이들 두 나라의 상호 經濟, 文化, 外交, 科學技術의 交流와 協力을 한층 擴大시켰다. 美·中共 修交로 前後 30년 아시아의 冷戰構造는 崩壞되고 새로운 이 地域에 美·日·中共을 일방으로 하고 蘇聯을 타방으로하는 勢力構造가 탄생했다.

총래 아시아의 權力構造는 美·日과 中·蘇를 두 축으로 美·蘇와 中·蘇의 對立關係에 의해 주로 展開되어왔다.

그러므로 現在까지 冷戰의 東西갈등은 이제 東東對決로 그 圖式이 바뀌어진 셈이다.

'72년 닉슨 美大統領의 歷史적인 中共 訪問으로 發表된 上海 共同聲明으로 부터 兩國이 正式修交에 이르기까지 7년 이 期間은 결코 짧은 것은 아니다.

현안의 난제는 역시 台灣의 安保問題였다.

이 問題는 中共이 武力解放論을 事實上 포기함으로써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보장은 그 合意文書에 의해 공개된 事實은 아니다.

하지만 中共黨副主席 鄧小平이 統一以後 台灣의 政治, 社會, 經濟

体制는 그대로 存続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그러한 추측을 可能케 한다.

그러면 美·中共의 外交關係 정상화는 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던가.

美国쪽 보다 修交가 다급했던 中共側의 이유를 보면 다음 두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社会帝國主義」로 여기고 있는 제일의 敵 蘇聯에 대한 對外戰略上的 必要와 둘째, 華國鋒과 鄧小平의 政治生命이 걸려있는 「4대부문 現代化」政策推進 때문으로 分析된다.

그밖의 이유로 中共이 이미 좌시할 수 없을만큼 팽창한 베트남 問題를 들 수 있다.

베트남이 꿈꾸는 印支聯邦化는 中共의 東南亞進出과 권익 확보에 커다란 위협이 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中共은 美国의 協力이 必要했 을 것이다.

한편 美国측 사정은 어떠한가.

對中修交의 背景으로써 첫째, 이란사태의 惡化와 그 과장으로서 北으로 아프카니스탄에서 南으로 이디오피아까지 미치는 政勢의 流動을 들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美国의 經濟 돌파구로서 中共의 市場性이 對中國交 정상화를 서두른 동기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前者는 對蘇戰略上的 必要와 石油資源 扞保를 위한 西方側의 권익 때문이며 後者는 美国의 資本進出을 위해 불가피한 措置로 分

析된다.

美·中共修交는 양국의 이같은利害가 합치된데서 이루어진 것  
임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무엇보다 공통점으로 도출되는 것은  
최근 中東과 東南亞地域에 두드러진 蘇聯의 勢力擴張을 共同으로  
견제하기 위한 戰略構想이란 면을 소홀히 할 수 없을것 같다.

이런점에서 日·中共 條約체결과 美·中共修交등 일련의 아시아  
권력질서 개편은 蘇聯이 반발하고 있는 것처럼 대소포위망 구축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美国은 越南戰에서 입은 상처때문에 아시아에서 일단 손을 뺐었  
다. 하지만 軍事強國으로 등장한 베트남의 蘇聯진영 가담은 美国  
의 對外戰略 遂行上 커다란 차질을 주는 것이었다.

더우기 蘇聯의 블랙·아프리카 中東 印度亞 地域에서의 影響力  
擴大는 美国의 위신과 국익에 적지 않은 손상을 주는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래서 美国은 아시아 平和構造 및 美国의 권익확보를 위한 새  
로운 勢力改編에 中共을 끌어 들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美国은 中共을 對蘇戰略上的 차이나·카드로  
活用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蘇聯은 美·日·中共의 이러한 새 「편짜기 움직임」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 2. 蘇聯의 対応 : 아시아 政策목표

蘇聯은 美·中共修交가 發表되자 프라우다 및 이스베스차등

党·政府機關紙와 국영통신 타스를 통해 「나토(北大西洋條約機構) 판 軍事同盟」이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美·日·中共 등 3국의 결합이 앞으로 同盟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分析은 本文에서 다루기로 하고 아뭏든 여기서는 美·中共修交가 蘇聯의 對아시아戰略上 일대 충격이 아닐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가. 美·日·中共 등 3국 協力체에 대해 蘇聯이 対応할 수 있는 方式은 우선 세가지로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蘇聯은 東南亞에 대한 外交攻勢와 침투공작을 더욱 強化할 것이 豫想되며,

둘째, 極東軍事力を 增強하여 中共위협과 美·日·中共에 의한 太平洋勢力權 형성을 견제 對항할 것 같다.

셋째, 對日 接近으로 美·日·中共의 연대관계를 弱화 내지 무력화 시키려 들것으로 보인다.

蘇聯은 反蘇 연합 전선구축에 對항키 위해 이미 78년말 베트남과 友好協力條約을 맺었으며 이어 이디오피아와도 같은 條約을 그리고 아프카니스탄과는 善隣協力條約을 각각 締結했다.

이 세가지 條約은 불과 한달동안에 이루어진 것인데 이러한 事例는 극히 드문 일이다.

이러한 2국간 條約은 결국 蘇聯이 의도하는 아시아集團安保構想을 구체화 하기위한 世界戰略의 일환이다.

주지하다시피 크렘린은 유럽에서의 현상고정과 東歐權支配를 확인

받은후 아시아에 影響力을 擴大하기 위해 1969년 아시아 集團安  
保論을 제창했다.

蘇聯의 戰略的 意圖는 아시아에서 外交侵透攻勢를 強化하여 美國  
의 利益權을 惡化시키고 反中共 包圍網을 형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 國間條約을 締結한뒤 그 條約을 점차 확대하  
여 하나의 網으로 연결해 나간다는 戰略이다.

앞의 3 國間 個別 條約 締結은 蘇聯의 새로운 條約網 형성의  
 일환으로 美·中共條約 締結에 대한 蘇聯의 구체적인 반발이라 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베트남과의 條約 締結은 軍事戰略上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첫째, 베트남은 東南亞 最大의 軍事勢力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둘째, 蘇聯은 베트남을 확보함으로써 中共을 남쪽에서 包圍하고  
 中蘇國境으로의 兵力移動을 控制하려는데 그 意圖가 있으며,

셋째, 蘇聯은 이를 발판으로 東南亞諸國에 進出하기 위한 戰略的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美·中共修交에 対応하여 蘇聯은 앞으로 東南亞에 勢力을 더욱  
 팽창하기 위한 外交攻勢를 한층 強化할 것으로 보인다.

더우기 베트남의 캄란만이 蘇聯의 海軍基地로 提供될 경우 사태  
 는 美·日·中共에 매우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캄란만은 蘇聯의 世界戰略遂行上 불가결한 중계항으로 戰略要衝이  
 기 때문이다.



크렘린의 戰略構想은 페르샤만 地域에서 인도·파키스탄·아프카니스탄을 거쳐 인지반도를 연결 東支那海와 東海를 하나의 고리로 묶어 對中共封鎖網을 형성하려는데 있다.

이러한데면 印度·방글라데시 友好協力條約(1971년) 베트남·라오스條約(1977년) 蘇·남예멘 經濟協定(1977년) 그리고 蘇·아프가니스탄條約 등은 蘇聯이 地域적으로 인접한 國家와 파생적인 條約을 締結, 서로 연결해 나감으로써 反中共 聯合勢力을 넓혀가려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나. 한편 蘇聯은 美·日·中共 3국의 提携에 반발하여 極東海軍力 增強을 가속화 할것이 豫想된다.

海軍力強化 이유는 첫째, 美國에 대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蘇海軍 總司令官 고르시코프가 말한대로 軍事力을 政治的 影響力 行事的 主要手段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들이다.

크렘린은 제 3국에 대해 經濟, 技術援助를 통해 政治的인 힘을 發揮하는 것이 아니라 軍事力을 빌어 政治, 外交的 影響力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

蘇海軍力의 增強은 石油資源을 비롯한 모든 보급물자를 海上輸送에 依存하고 있는 日本에 특히 危險이 아닐 수 없으며 中共 역시 海上封鎖를 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事態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蘇聯艦隊가 한 海域에서 다른 海域으로 移動을 反復하는 行爲는 장거리 외양작전능력을 向上시키기 위한 것이다.

現在 印度洋과 南支那海域을 빈번히 往復하며 軍事力을 과시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이다.

다. 蘇聯은 또 美·日·中共 3국 協力体制를 惡化시키기 위해 오히려 日本과의 關係改善을 시도할 공산이 크다.

日·中共平和友好條約 締結以後 蘇聯은 日本에 대해 상당한 반발을 했다.

그러나 蘇聯은 앞으로 對日 壓力을 強化하는 것은 戰略上 逆效果일 것으로 判斷하고 시베리아 開發計劃에 日本을 적극적으로 參與시키기 위한 外交努力을 展開할 것이 확실하다.

日本の 對蘇 經濟協力 확대는 結果적으로 中共을 견제하는 효과가 될 수 있고 日·中共간의 유대를 弱화시킬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蘇聯은 이 戰略을 유용하게 구사할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日本은 시베리아 開發 參與가 蘇聯의 極東戰略強化를 측면 지원해주는 結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日·蘇協商에 속극적인 姿勢를 취할 可能性이 크다.

日本은 北方領土의 반환을 協商의 先行條件으로 繼續 固守할 것이 豫想되며 蘇聯은 日本의 시베리아 開發參與를 위해 對日 協商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分析된다.

라. 그다음 蘇聯은 台灣의 戰略上 가치때문에 自由中國에 接近할 움직임이 豫想된다.

그러나 台灣政府는 蘇聯의 接近可能性을 公式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蘇·台灣接近은 現段階로는 실현성이 희박하다.

그 이유는 台灣은 經濟協力이 不確實한 蘇聯과 接觸하기 보다는 美·日과의 協力關係를 繼續 強化하여 經濟基盤을 굳건히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으며 對蘇接近은 中共을 자극하는 동시 美國의 권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判斷하기 때문이다.

台灣은 美國의 10대 交易國중의 하나가 되었다.

하지만 蘇聯은 (1) 中共包圍網을 일층 強化할 수 있다는 점에서, (2) 그리고 台灣海峽의 日本 源資材補給 루트를 위협하여 對日外交 協商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수 있고 (3) 極東艦隊의 印度洋 進出과 活動을 유리하게 展開할 수 있다는 利点에서 台灣에 대한 接近攻勢를 배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 蘇聯의 韓半島 戰略은 中·蘇關係의 연장선상에서 把握하지 않으면 안된다.

美·中共修交 結果 蘇聯은 北韓이 中共쪽에 기울것으로 判斷하고 外交壓力을 한층 強化할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北韓에 대한 中·蘇 양국의 經濟的 支援은 더욱 고양될 것 같고 이 틈바구니에 선 北韓의 外交는 選擇의 여지가 좁아졌다고 할 수 있다.

中·蘇의 이러한 對立的 競爭關係 때문에 蘇聯은 北韓과의 同盟關係를 무시하면서까지 韓國과의 실질적인 接近을 시도할 것 같지는 않다.

蘇聯에 있어서 北韓의 戰略的 價值는 東北亞에 勢力膨脹을 겨냥하고 있는 베트남만큼이나 중요하며 베트남은 南쪽에서 北韓은 東北

에서 크렘린의 利益을 守護하고 對中共 包圍網을 형성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存在이다.

그렇다고 蘇聯의 對韓國 接觸이 전혀 不可能한 것은 아니다.

첫째는 블라디보스톡에 基地를 둔 極東艦隊의 南下進出을 위해, 둘째는 北韓의 지나친 中共傾斜를 견제하기 위해서도 韓國과의 接近을 시도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蘇聯의 韓國接近은 北韓이 中共에 과도하게 依存하지 않을만큼의 效果를 거두는데 목표를 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바. 끝으로 中·蘇關係는 상호 敵對立場이 피차의 對外戰略上 不利하다고 判斷되면 制限된 和解接近이 이루어질 可能性이 없지않다.

그러나 黨과 政府 차원을 完全히 분리하여 政府간 對話는 可能하더라도 「黨과 黨」關係는 좀처럼 和解接近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어려운 국면이 많다.

蘇聯의 軍事力 膨脹에도 問題가 있다. 그것은 (1) 經濟力과 상관 關係에 있으며 80년대이후 西方側의 對蘇 軍事力 우위를 따라 잡기 어려운 실정과 (2) 브레즈네프의 老齡과 後繼者 부상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美國과의 대립트를 깨고 아시아에서 계속 軍事력을 강화하여 緊張을 조성하리라고만은 보기 어려운 것이다.

Soviet Response to Cooperative Arrang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ommunist China

(A Resume)

Cho Kyu-jin

Editorial Writer for Kyunghyang Shinmoon  
Research Fellow of the Institute on  
Unification

1.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rilateral Cooperative Arrangement

The Conclusion of the Sino-Japanese peace treaty and the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Washington and Peking greatly broadened the scope of the mutual economic, cultural, diplomatic, scientific and techn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among these countries.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put an end to the structure of the Cold War that had persisted in Asia for 30 years since the close of World War II, giving rise to a new structure of power with the Soviet Union on one side and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ommunist China on the other. Until that time, the Asian structure

of power revolved mainly around two pivots -- the one comprising Washington and Tokyo and the other Moscow and Peking. It was characterized by the rivalr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and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Communist China.

Therefore, it might be said that the East-West conflict characteristic of the Cold War gave way to an East-East conflict. It took seven long years for Washington to regularize its relations with Peking since the historic surprise visit of President Nixon to China and the issuance of the Shanghai joint communique. The most outstanding issue pend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the security of Taiwan. The question seems solved for the time being as Peking gave its tacit consent to refraining from military takeover of the island. The consent has been neither committed to writing nor made public.

However, from the statement made by Teng Hsiao-ping, vice chairman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that th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of Taiwan would be kept unaffected even after the unification of China, we can gather that Peking gave up its military

design.

Then, why the diplomatic normaliza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ommunist China had to come about at this  juncture? We may assume two reasons which rushed Peking to normalize relations with Washinton.

First, Peking felt it would meet a strategic need in dealing with Moscow that it regards as the champion of social imperialism and archenemy. The second is the need for concentration on the Four Modernizations on which both Hua Kuo-feng and Teng Hsia-ping stake their political life. The expansion of Vietnam which has put Peking out of patience may be cited as another reason. Hanoi's ambition of achieving a Vietnam-dominated federation of Indochina poses a great threat to the Chinese interest and its policy of gaing  foothold in Southeast Asia. China's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is necessary to counter the threat.

As for Washington, its diplomatic normalization with Peking was prompted by the political upheaval in Iran and the widespread instability from Afghanistan in the north and Ethiopia in the south. The vast market potential of China was also attractive to the United

States who was trying hard to find an economic breakthrough. The prospective market also seemed to hold out a great promise for future capital investment. Thus, Washington was also influenced by strategic considerations with regard to Moscow and economic considerations of the West for acquiring oil.

The Sino-American entente resulted from an agreement on the reciprocal interest. It must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two had common strategic requirement for stemming the expansion of the influence of the Soviet Union that had been pronounced in the Middle East and Southeast Asia in recent years.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recent series of shakeups in the power structure of Asia highlighted by the Sino-American normalization and the Sino-Japanese normalization constitute an encirclement of the Soviet Union. Moscow has good reasons for being unhappy about them.

Frustrated in the Vietnam war, the United States decided to disengage militarily from Asia. The emergence of united Vietnam as a strong military power and its joining the Soviet bloc caused a major stumbling block to the prosecution of its foreign policy and military



strategies. The extension of Soviet influence in Black Africa, the Middle East and the Indian Subcontinent will no doubt deal a hard blow to the prestige and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Therefore, Washington sought to bring Peking into the new structure of power designed to promote the chances of peace and American interest in Asia. Washington is playing a "China card" against the Soviet Union, so to speak. On the other hand, Moscow reacts violently to the grouping together of Washington, Tokyo and Peking.

## 2. Soviet Response and Objectives of Its Asia Policy

When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was announced the Soviet press led by Pravda, Izvestia and Tass lashed out at it which they termed a NATO-type military alliance. It came as a great shock to Moscow.

a) The response of Moscow to the cooperative arrangement between Washington, Tokyo and Peking may take the following three forms: In the first place, the Soviet Union is likely to intensify its diplomatic offensive and infiltration attempts in Southeast Asia. Secondly,

Moscow is likely to strengthen its military buildup in the Far East to countervail and resist the strength of Peking and the formation of a tripartite power bloc linking Washington, Tokyo and Peking. In the third place, Moscow will befriend Japan more in order to weaken or cancel out the impact of the tripartite solidarity.

The treaty of friendship and cooperation concluded with Vietnam at the end of 1978 was intended as an antidote to an anti-Moscow united front. Similar treaties were also signed with Ethiopia and Afghanistan. signing of these three pacts in a matter of one month indicates how hurried Moscow was in responding to the rising pressure.

These bilateral treaties represent preparatory steps toward the ultimate realization of its Asian collective security arrangement up in the sleeve of Kremlin strategists. Having secured a status quo in Europe and unchallenged predominance over East Europe, Moscow is all out to achieve an Asian collective security system by way of widening its sphere of influence in the region.

The strategic aim of the Soviet Union in Asia is to contain the influence of the United States and form an encirclement of China by stepping up its diplomatic

offensive. It calls for weaving a network of bilateral treaties and toward that end Moscow tries hard to multiply them. Thus, the three bilateral pacts Moscow entered into may be called a concrete response to the rapprochement of Peking with Washington and Tokyo.

Of them all, the treaty with Vietnam assumes greatest relevance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Vietnam has emerged as the strongest military power in Southeast Asia. Soviet control of Vietnam will enable Moscow to divert Peking's attention and troop concentration from the Sino-Soviet border to the southern front. Moreover, Vietnam offers a vantage point for Moscow to force its way into nations of Southeast Asia.

In case the Camranch Bay will be at the disposal of Soviet naval fleets in Southeast Asia, the consequence will prove critical for Washington, Tokyo and Peking. The bay is vital to the global strategy of the Soviet Union as a port of relay and naval base. It is the strategy of Moscow to link the Persian Gulf area through India, Pakistan, Indochina and the East China Sea to the Sea of Japan in a circle to surround and blockade communist China. The India-Bangladesh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1971), the Vietnam-Laos treaty(1977), the Soviet-S. Yemen economic agreement(1977) and Soviet-Afghanistan treaty--all these are some of the links based on bilateral ties which the Kremlin will put together into larger anti-Peking encirclement.

b) We may safely predict that the Soviet Union will go on building up its Far Eastern fleet to counteract the rapprochement between Peking, Washington and Tokyo. By so doing, it will seek to attain military superiority over the United States in this part of the world and employ the military power as political leverage.

It has been the position of the Kremlin to use military power as an instrument of politics and diplomacy, instead of attaining political objectives through economic and technical aid. Stronger Soviet naval presence will prove a serious menace to Japan who depends upon import by sea for all raw materials including petroleum. Peking will also suffer heavily from possible naval blockade of its extensive coasts by the Soviet Union.

Repeated movement of one Soviet fleet from one area to another and vice versa is undertaken to improve the ocean-going operational capability of its navy. It is for this reason that Russian naval vessels are

frequently to be seen navigating through the India Ocean and the South China Sea in demonstration of their formidable naval power.

c) Moscow will seek to strengthen its ties with Japan for the sake of undermining the Washington-Tokyo-Peking cooperative arrangement. The Soviet Union was highly critical and wary of Japan's move to conclude an amity and friendship treaty with Communist China. In the judgement that increased pressure on Japan would rather antagonize the latter, Moscow will probably allow Japan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Expansion in Japan'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Soviet Union may result in restraining Peking, thereby weakening the relations between Japan and China. In this respect, Moscow will stake strategic advantage of the economic tieup. On the other hand, Japan's involvement in Siberian development projects may also serve to reinforce the Soviet war potential in the Far East. In view of this, Japan might take a passive stance in negotiating with the Soviet Union on this matter. Japan will most likely continue to insist on regaining its northern

territory as a precondition to negotiating economic deals. Moscow will keep negotiations going in order to ensure Japanese participation in the development of Siberia.

d) It is foreseen that the Soviet Union will improve its relations with Taiwan in light of the latter's strategic value. However, as long as the Taiwan government renounces any official relations with Moscow, Taiwan-Moscow rapprochement appears to be unlikely for the time being. Taiwan is certain to prefer the more profitable economic partnership with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o ameliorating ties with the Soviet Union whose potential for future economic cooperation seems uncertain. Taiwan also feels a policy of befriending Moscow would provoke Peking unfavorably, and thus, and it will militate against the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aiwan is among the ten largest trading partners of the United States. The Soviet Union will intensify its diplomatic efforts to win Taiwan over to its side because:

1. It will strengthen the encirclement of China;
2. Military sway over the Taiwan Straits will give Moscow greater political leverage in dealing with Japan whose supply of raw materials comes via the sea route;
3. The

Soviet Far Eastern Fleet will enjoy greater maneuverability and easier access to the Indian Ocean.

e) The strategy of Moscow toward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erceived in the context of the Sino-Soviet relations. It is assumed that Moscow will apply added diplomatic pressure on Pyongyang for fear that north Korea should lean toward Peking as a result of the Sino-American rapprochement. Therefore, Moscow and Peking will compete with each other in giving aid to Pyongyang in years ahead. Caught in between, north Korea will have fewer diplomatic options to choose from.

Because of the rivalry and competition between the two Moscow is unlikely to enter into substanti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in the face of its alliance with Pyongyang. To the Soviet Union north Korea is strategically as important as Vietnam in Southeast Asia. North Korea in Northeast Asia and Vietnam in Southeast Asia are two vital elements in achieving encirclement of Communist China to protect the interest of Moscow.

Contact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south Korea is not altogether impossible, though. There still remains the possibility of improving relations between the two

in light of the Soviet interest in facilitating the advance of its Far Eastern Fleet into Southeast Asia through the Korea Straits and in holding Pyongyang at bay by way of discouraging its pro-Peking tendency. Any such approach of Moscow to Seoul will have only a limited objective of preventing Pyongyang from falling into the fold of Peking.

f) It is possible for Moscow and Peking to seek limited accommodation and detente in case they find their mutual confrontation is against their respective national interest. The two communist countries may rigidly differentiat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s and those between parties. Their bilateral dialogue on governmental level may be possible, but rapport between the communist parties of the two nations will be improbable.

The military expansion of the Soviet Union involves many problems. 1. Its correlation with economic power-- the military superiority of the West in and after 1980s will be hard for Moscow to catch up on its weak economic base; 2. Absence of a definite successor to the aged and ailing party chief Brezhnev.



Under the circumstances, the Soviet Union is not in a position to build up its military might and increase tension in Asia continuously at the cost of the developing detente with the United States.